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밥상머리교육
실시 여부에 따른 중학생의
학교부적응 및 비행행동의 차이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

장 우 순

2016년 8월

밥상머리교육
실시 여부에 따른 중학생의
학교부적응 및 비행 행동의 차이

지도교수 최 보 영

장 우 순

이 논문을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6년 6월

장우순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_____ (인)

위 원 _____ (인)

위 원 _____ (인)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2016년 8월

<국문초록>

밥상머리교육 실시 여부에 따른 중학생의 학교부적응 및 비행 행동의 차이

장 우 순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 전공

지도교수 최 보 영

본 연구는 밥상머리교육의 실시 여부가 중학교 청소년의 학교부적응 및 비행 행동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밥상머리에서 웃어른으로부터 배우는 예절교육이 학교부적응 및 비행 행동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탐색해 보고자 하였으며 이를 위해서 연구문제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 연구문제 1. 밥상머리교육 실시여부에 따라 중학생의 학교부적응 및 비행행동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 연구문제 2. 밥상머리교육을 받는 학생의 경우 가족과 대화하며 식사한 기간과 식사횟수, 식사시간에 따라 중학생의 학교부적응 및 비행행동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 연구문제 3. 밥상머리에서 가족과 함께하는 가족식사에 대한 인식정도에 따라 중학생의 학교부적응 및 비행행동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 연구문제 4. 밥상머리에서 예절교육을 받는 빈도에 따라 중학생의 학교부적응 및 비행행동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위와 같은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제주도내 공립 중학교 4개 학교 350명

을 임의 표집하여 자기 기입식 질문지 조사 방식으로 실시하였으며, 2015년 10월 12일부터 10월 16일까지 5일간 연구자가 직접 해당 학교를 방문하여 설문지에 대한 설명을 한 후 설문지를 수거하는 절차로 진행하였다.

연구의 측정도구는 밥상머리교육 척도는 김숙경(2014)이 개발하여 사용한 설문지와 이정선(2009)이 사용한 문항 및 연구자가 개발한 밥상머리에서의 예절교육 내용에 관한 문항(총 14문항, 5점 Likert 방식)을 종합하여 사용하였고, 학교부적응 척도는 박정미(1984), 이상필(1990), 전용태(1992) 등이 사용한 설문지를 김혜영(2014)이 학교부적응 요인을 4개의 영역(교사관계, 교우관계, 학교생활관계, 학교규칙준수 관계)으로 나누어 사용한 척도(총 24문항, 5점 Likert 방식)를 사용하였다. 청소년 비행 진단척도는 전영실(2001)과 정귀화(2001)가 사용한 비행요인을 함께 구성한 경미현(2013)의 진단척도(총 33문항, 5점 Likert 방식)를 사용하였으며, 4개의 하위요인(도피비행, 폭력비행, 재산비행, 성비행)으로 구성되었다.

자료 분석은 SPSS 20.0에 의해 빈도분석 등 기술통계분석, 상관관계분석, t -검증, F -검증, 일원분산분석 및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밥상머리교육 실시여부에 따른 중학생의 학교부적응 및 비행 행동의 차이 분석에서는 밥상머리교육 실시 여부가 중학생의 학교부적응 및 비행 행동 전체 및 하위요인 모두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밥상머리교육을 받는 학생이 받지 않는 학생보다 학교부적응 및 비행 행동이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밥상머리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의 경우 가족과 함께한 식사 기간, 식사 횟수, 식사시간에 따른 학교부적응 및 비행행동의 차이분석결과 학교부적응에 대한 차이는 식사한 기간에 따라 교사관계영역과 학교규칙준수관계영역에서, 식사 횟수에 따라 교사관계영역, 학습활동관계영역, 학교규칙준수관계영역에서, 식사 시간에 따라 학습활동관계영역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행 행동에 대한 차이분석 결과는 식사한 기간에 따라 도피비행과 폭력비행에서, 식사횟수에 따라 도피비행과 성비행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후분석 결과 식사기간에 따라서는 '1년 이상-3년 미만'인 집단은 '7년 이상'인 집단보다 도피비행과 폭력비행 수준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 식사횟수는 '주 1회'인 집단은 '주 4회'인 집단보다 도피비행 수준이 높게 나타났고, '주 2회'인 집단은 '주 5회 이상'인 집단보다 성비행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가족과 함께하는 가족식사에 대한 인식정도에 따른 학교부적응 및 비행행동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가족과 함께하는 가족식사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정도가 높은 집단이 긍정적인 인식정도가 낮은 집단에 비해서 학교부적응 수준과 청소년비행 수준 모두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밥상머리에서 예절교육을 받는 빈도에 따라 중학생의 학교부적응 및 비행 행동에 대한 차이를 분석한 결과에서는 밥상머리 예절교육의 빈도가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보다 학교부적응 전체 및 4개의 하위요인 모두에서 학교부적응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청소년비행의 경우에도 밥상머리 예절교육의 빈도가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보다 비행 행동의 전체 및 하위요인 중 도피비행, 폭력비행, 성비행에서 비행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 본 연구의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밥상머리교육이 중학생의 학교부적응 및 비행행동과 상관관계가 있음을 검증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향후 청소년들의 학교부적응 및 비행 행동을 예방하고 올바른 인성관을 심어줄 수 있는 대안으로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밥상머리에서의 예절교육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여 가정에서의 밥상머리교육 프로그램을 짜고 교육을 실천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연구의 대상이 제주지역 중학교 학생으로만 한정 되어 있어서 향후 연구자들은 연구범위를 지역별로, 학교급별로 확대하여 연구함으로써 학교폭력 등 청소년 비행 예방을 위한 가정에서의 인성교육이 저 연령 때부터 바르게 정립될 수 있도록 하는데 밥상머리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킬 수 있기를 기대한다.

목 차

I. 서 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문제 및 가설	7
3. 용어의 정의	8
II. 이론적 배경	11
1. 밥상머리교육	11
1) 밥상머리교육의 의의	11
2) 밥상머리교육의 사례	12
2. 학교부적응	16
1) 학교부적응의 개념	16
2) 학교부적응의 유형	19
3) 학교부적응의 원인	21
3. 청소년 비행	24
1) 청소년 비행의 개념	24
2) 청소년 비행의 유형	26
3) 청소년 비행의 원인	28
III. 연구방법	31
1. 연구대상	31
2. 연구절차	32
3. 연구도구	33
4. 자료처리 및 분석	37

IV. 연구결과 및 해석	38
1. 밥상머리교육, 학교부적응, 비행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38
2. 밥상머리교육 실시 여부에 따른 학교부적응 및 비행행동의 차이	40
3. 가족식사의 기간, 횟수, 시간에 따른 학교부적응 및 비행행동의 차이	45
4. 가족식사의 인식에 따른 학교부적응 및 비행행동의 차이	55
5. 밥상머리 예절교육 빈도에 따른 학교부적응 및 비행행동의 차이	59
V. 논의 및 결론	66
1. 논의	67
2. 결론	71
참고문헌	73
Abstract	80
부 록	84

표 목 차

표 III-1. 연구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32
표 III-2. 밥상머리교육 측정도구의 신뢰도	34
표 III-3. 학교부적응 측정도구의 신뢰도	36
표 III-4. 청소년 비행 측정도구의 신뢰도	37
표 IV-1. 밥상머리교육, 학교부적응, 비행의 전체 상관관계	38
표 IV-2. 밥상머리교육, 학교부적응, 비행의 요인별 상관관계	39
표 IV-3. 밥상머리교육 실시 유무	40
표 IV-4.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밥상머리교육 실시여부	41
표 IV-5. 밥상머리교육 실시에 따른 학교부적응 차이	44
표 IV-6. 밥상머리교육 실시여부에 따른 학교부적응 요인별 차이	44
표 IV-7. 밥상머리교육 실시여부에 따른 청소년 비행 차이	45
표 IV-8. 밥상머리교육 실시여부에 따른 청소년 비행 요인별 차이	45
표 IV-9. 밥상머리교육의 기간 및 횟수, 시간 빈도	46
표 IV-10. 가족식사 기간에 따른 학교부적응 차이(전체)	47
표 IV-11. 가족식사 기간에 따른 학교부적응 차이(요인별)	48
표 IV-12. 가족식사 횟수에 따른 학교부적응 차이(전체)	49
표 IV-13. 가족식사 횟수에 따른 학교부적응 차이(요인별)	50
표 IV-14. 가족식사 시간에 따른 학교부적응 차이(전체)	50
표 IV-15. 가족식사 시간에 따른 학교부적응 차이(요인별)	51
표 IV-16. 가족식사 기간에 따른 청소년 비행의 차이(전체)	52
표 IV-17. 가족식사 기간에 따른 청소년 비행의 차이(요인별)	53
표 IV-18. 가족식사 횟수에 따른 청소년 비행의 차이(전체)	53
표 IV-19. 가족식사 횟수에 따른 청소년 비행의 차이(요인별)	54
표 IV-20. 가족식사 시간에 따른 청소년 비행의 차이(전체)	55
표 IV-21. 가족식사 시간에 따른 청소년 비행의 차이(요인별)	55

표 IV-22. 가족과 함께하는 가족식사에 대한 인식순위	56
표 IV-23. 가족식사에 대한 인식 고저집단에 따른 학교부적응 차이	57
표 IV-24. 가족식사에 대한 인식 고저집단에 따른 학교부적응 요인별 차이	58
표 IV-25. 가족식사에 대한 인식 고저집단에 따른 청소년 비행 차이	58
표 IV-26. 가족식사에 대한 인식 고저집단에 따른 청소년 비행 요인별 차이	59
표 IV-27. 밥상머리 예절교육의 빈도순위	60
표 IV-28. 밥상머리 예절교육의 빈도분석	62
표 IV-29. 밥상머리 예절교육의 고저집단에 따른 학교부적응 차이	63
표 IV-30. 밥상머리 예절교육의 고저집단에 따른 학교부적응 요인별 차이	64
표 IV-31. 밥상머리 예절교육의 고저집단에 따른 청소년 비행 차이	65
표 IV-32. 밥상머리 예절교육의 고저집단에 따른 청소년 비행 요인별 차이	65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최근 몇 년 사이 학교폭력 등 청소년 문제행동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청소년들의 비행 예방을 위한 인성교육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며 가정에서의 인성교육의 중요성이 재조명되고 있다. 입시위주의 경쟁교육으로 경쟁이 미덕이 되는 비인간화 현상이 만연해지고 있고, 정신적인 것보다도 물질적인 것에 더 가치를 두는 물질만능주의 사회현상의 영향으로 이기적인 인간으로 성장해가는 가운데 청소년들은 자신의 행동에 대한 가치평가기준에 매우 혼란을 겪고 있으며(송병호, 2005), 이러한 사회적 현상은 청소년기 학생들의 건전한 인성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으로 작용하여 다양한 청소년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이성구, 2000).

교육부에서 보도한 2015년 2차 학교폭력실태조사결과(2015. 12. 1.)에 의하면 전국의 초, 중, 고 학생들의 학교 폭력 중(초 1.4%, 중 0.7%, 고 0.5%) ‘동학고동학년(71.4%)’으로부터 언어폭력(35.3%), 집단따돌림(16.9%), 신체폭행(11.8%) 등의 폭력피해를 당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폭력가해이유(교육부, 2014. 11. 28)로는 장난으로(31.3%), 마음에 안 들어서(21.0%) 등 절반이 넘는 학생이 특별한 이유도 없이 동료학생에게 폭력을 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에서 학부모들의 인식을 보면 학교폭력 가해의 원인으로 ‘가해학생의 인성 또는 가정환경’을 1순위로 답하였고, 학교폭력의 예방대책으로도 ‘인성교육 강화를 통한 인성회복’을 1순위로 들고 있어 무엇보다 청소년들의 인성교육 강화가 필요한 것임을 나타내주고 있다.

청소년들의 비행 행동을 예방하고 바람직한 인성변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그동안 중요성을 잊고 있었던 인성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으며, 이러한 맥락에서 인성교육범국민실천연합이 출범(2012. 7. 24.)되는 등

민간단체 주도의 인성교육활동이 확대되고 있고, 국회의 인성교육실천포럼이 창립된바 있으며(2013. 2. 18.), 2015년에는 인성교육을 의무로 규정한 인성교육진흥법이 제정공포(법률 제13004호, 2015. 1. 20. 제정) 되기에 이르렀다. 이 법에서는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人性)을 갖춘 국민을 육성하여 국가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여 인성의 필요성을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으며, ‘인성교육’을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공동체·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인성교육법 제2조)임을 강조하고 있다.

인성이란 사전적인 용어로는 사람의 성품, 즉 각 개인이 가지는 사고와 태도, 행동특성을 의미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인성이라고 하면 사회적으로 인정되는 바람직한 인간적 특성 또는 인격, 사람됨을 의미한다고 하고 있다(교육부, 2013), 우수명(2013)은 인성을 그 사람의 됨됨이이며 기본적인 도덕성과 양심의 표현이라고 하였고, 인성의 근본 뿌리인 성품은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기준이고, 사회를 밝게 비추는 빛이며, 인성은 가지고 태어나는 것도 아니고 저절로 길러지는 것도 아니며 단기간에 형성되는 것도 아닌 오랜 동안 가정에서 성장하면서 키워가는 것이 성품이고 곧 인성이다(우수명, 2013)고 하였다. 이처럼 중요한 가치와 덕목을 지닌 인성교육을 가정에서부터 다시 시작하자는 것이 곧 가정에서의 밥상머리교육이다.

가정이란 사람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접하게 되는 환경이고, 아이들을 키워내는 최초의 학교이며, 아이들이 처음 만나고 가르침을 받는 선생님이 부모이기 때문에 자녀들의 인성교육을 누구라도 손쉽게 시작할 수 있는 곳은 가정이라고 할 수 있다(우수명, 2013). 가정은 우리의 삶의 버팀목이 되고 안식처가 되는 사회의 기본이 되는 가장 작은 단위이며, 우리 아이들은 가정에서 부모의 사랑을 받고 보호를 받으며 기본적인 사회성과 인지발달을 이루고, 이러한 토대위에서 독립된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사회성과 인성을 배우면서 신체적, 정서적, 심리적으로 성장하게 되고, 부모와 함께하는 가정에서의 따뜻한 시간은 자녀들이 건강하게 성장하는 밑거름이 된다(서울대학교 학부모정책연구센터, 2015).

이러한 따뜻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가정에서 가족들이 밥상에 둘러앉아 함

계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나누는 가족식사 시간은 서로의 감정을 공감하고 소통하면서 가족 간의 유대감을 강화시켜줄 수 있고 인간관계를 돈독히 할 수 있다. 가족끼리 함께 식사를 하면서 나누는 가족 간의 대화는 부모와 자녀 사이의 거리를 좁혀주며 가족식사를 통해서 자녀들이 기본적인 예절을 배우고 남을 배려하는 인성을 키워주는 시간이 되며 가족 간의 사랑을 확인하게 된다. 또한 가족식사 시간을 통하여 사회에서 요구하는 예절과 절제 등을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도 있게 된다(서울대학교 학부모정책연구센터, 2015).

이기영(2011)은 밥상머리는 가족들끼리 칭찬할 일이나 억울한 사연은 들어주고 서로 필요한 정보를 나눌 수 있는 소통의 장이 되며, 웃어른을 공경하는 위계질서를 통해 효의 가치관을 확립하고 가족 간의 단합심이 생기도록 만드는 중요한 자리가 된다고 하였다. 또한 밥상머리교육에서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배려, 질서 등을 배운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은 사회생활에서 확연히 구분되는 것이며, 밥상머리교육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가족 간의 대화문화를 만드는 것으로 밥상머리교육에서 서로 존중하는 공동체 정신이 자라게 되는 것이라고 하였다. 김인회(2004)는 부모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가 자녀들이라면 그 자녀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일까를 오늘의 부모세대는 그 자녀와 함께 처음부터 다시 배워야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가장 좋은 배움터가 바로 온 가족이 함께 모이는 밥상머리라고 하였다.

옛날부터 우리는 어른과 함께한 밥상머리에서 인생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덕목으로 밥상머리예절교육을 하나씩 배워왔다. 어른이 수저를 들기 전에 먼저 음식에 손을 대지 않고 기다리는데서 인내심을 배웠고, 그릇 하나에 담긴 음식들을 가족들과 함께 나눠먹으면서 배려와 절제를 깨우쳤으며, 가족들과 대화를 하면서 나와 다른 생각을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능력을 키웠다. 밥상은 예절이 살아 숨 쉬는 공간이었을 뿐만 아니라 어떤 잘못도 이해받을 수 있는 화해의 장이었으며 삶의 철학이 대물림되는 교육의 공간이었다(SBS스페셜 제작팀, 2015). 이처럼 가족끼리 함께하는 가족식사 시간에서의 밥상머리교육은 자녀들의 인성교육을 위해서 매우 의미 있는 시간이 된다.

밥상머리교육의 선행연구를 보면, 가족과 함께 하는 가족식사가 즐겁고(이정선, 2009),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를 높여주며(배희분 외, 2013; 장영수, 2013),

청소년의 사회성, 도덕성 발달에 도움이 되고(김숙경, 2014), 자아존중감이 향상되며(최미숙 외, 2013), 학교생활의 적응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이현아, 2014). 또한 밥상머리교육은 자녀들에게 예절과 공손, 배려와 절제를 배우는 예절수업이 되며(서울대학교 학부모정책연구센터, 2015), 청소년들이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가족 간의 유대를 강화시키고 행복감을 증진시키는 역할을 하여 음주, 흡연, 약물복용 등의 부적응 행동이 줄어든다(콜롬비아대학교, 2011)고 하였다. 신시네티 아동병원 연구(2006)에서도 가족과의 식사빈도가 많을수록 청소년들의 부적응 행동이 줄어든다는 연구결과가 있으며, 가천대 식품영양학과 조우균 교수팀(2010)의 연구에서도 청소년의 가족동반 식사 빈도가 많은 학생이 품성도 더 외향적이고 매사에 더 긍정적이며 감정적으로도 안정성을 보이고 개방적이었다고 하고 있다(중앙일보, 2014. 11. 12.)

이러한 연구결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청소년들은 가족과 식사하는 횟수가 적고 청소년들의 삶의 행복지수도 낮다는 분석결과가 보고되었다. 연세대 사회발전연구소(2014)에서 한국의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를 조사한 결과를 공개한 자료(조선일보, 2014. 11. 20.)에 의하면 우리나라 청소년의 행복지수는 OECD 국가평균(100)의 최하위(74.0)를 기록했으며,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는 67.6으로 OECD 평균인 85.8보다 현저하게 낮았다. 또한, 초등학생, 중학생들이 행복의 조건으로 ‘화목한 가정’을 1순위로 꼽았으나 정작 부모님과 일주일에 서너번 이상 저녁식사를 하는 비율은 59.6%로 OECD 국가 평균(77.9%)보다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들이 가족과 함께하는 가족식사 횟수가 적은 것이 낮은 행복지수로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위에서 제시한 여러 사례에서 보듯이 가족과 함께하는 밥상머리교육은 청소년들에게 즐겁고 행복한 요인이 되며 청소년들의 지적 성장은 물론 스스로를 절제하는 인내심을 배울 수 있고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와 이해심과 예절 등을 익힐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가족과 함께하는 가족식사를 통하여 삶의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고 그로 인하여 부적응 행동이 감소하는 등 밥상머리교육은 자녀들의 인성교육에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중학교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였는데, 청소년기는 급격한 신체적 변화와 함께 자율성과 독립에 대한 기대로 스트레스를 겪는 시기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적응이 중요한 의미를 지니며 성인기를 준비하는 단계로서 이 시기의 여러 가지 심리 사회적 적응은 이후의 성인기 적응에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다(유안진, 이점숙, 서주연, 2003). 또한 청소년기는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도덕적 측면에서 아동에서 성인으로 변화하는 중간단계로 인간발달에 있어서 중요한 과도기적 발달단계(서윤정, 2010)이며, 이 시기에 가정, 학교, 사회에서 받는 영향에 효율적으로 대처를 하지 못한다면 사회적, 행동적 부적응을 초래하게 되며 결국 사회적 문제로까지 발전하게 된다(이지혜, 2012). 또한 청소년기에 나타나는 특징으로는 신체적으로는 신체구조, 목소리, 외모가 바뀌는 시기이며, 정신적으로는 자아정체성이 확립되며 정체성을 추구하기 위한 사색을 즐기기도 하고 주위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도하며 대중매체를 통해서 자신이 생각하는 바람직한 인간상을 설계하기도 한다(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3).

특히, 중학생의 경우 신체발달로 신장과 체중이 급격히 증가하고, 사춘기에 접어드는 시기이며, 목소리가 변하는 등 2차 성징이 나타나는 시기이고, 지적 발달의 경우 하나의 차원만이 아닌 다차원적인 사고가 가능하다(엄덕순, 2001). 또래적인 면에서는 가족과의 시간보다는 또래집단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며, 집단이 형성되면서 또래 집단과의 소속감을 통해 생활패턴을 공유하면서 긍정적인 면과 문제행동 등 부정적인 면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유영아, 2007). 또한 초등학교에 비해 상대적으로 엄격한 분위기 속에서 다양한 과목에 따라 시간마다 선생님이 바뀌는 이질적인 환경에 적응해야 하기 때문에 중학교 시기는 청소년들에게 상당한 도전이 되며, 이 시기에 직면하게 되는 스트레스는 학교부적응, 비행 등 다양한 청소년 문제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다(조윤미, 이숙, 2008; Eccles & Midgley, 1989; 서윤정, 2010에서 재인용).

여성가족부의 전국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청소년유해환경 접촉 종합 실태조사(2012)에 의하면 청소년폭력 피해경험이 있다는 응답에서 중학생(12.9%)이 고등학생(10.1%)보다 폭력피해 경험률이 높게 나타났으며, 폭력 피해경험률에서도 폭행, 욕설·폭언, 돈·금품갈취, 왕따 등 모든 폭력유형별로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제주도의 경우 2014년 제주도내 학교정보 분석보고서(제민일보, 2015. 3. 1.)에 의하면 연간 학교폭력피해 학생 수는 학교당(초 0.3명, 중 8.1명, 고 2.7명)

중학생이 가장 많았고, 중학교는 전국 평균 연간 학생 수 5.6명 보다 대구 14.2명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수치였다. 또 지난 2012년은 4.6명, 2013년은 5.7명이었으나 2014년도에는 8.1명으로 3년 연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중학생 사이에 학교폭력 피해학생수가 많은 것은 예민한 사춘기에 접어드는 시기인데다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진학하며 갑자기 바뀐 여러 가지의 환경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라고 풀이되고 있다. 따라서 학교폭력 등의 청소년 비행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제주도내 중학생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해 볼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밥상머리교육이 청소년의 인성교육에 매우 중요한 요인임이 밝혀지고 있으나 아직까지 밥상머리교육에 대한 국내의 연구사례는 다른 분야에 비해서 소수에 불과하고 더구나 밥상머리교육을 중학생의 학교부적응 및 비행행동과 직접적으로 연관지어 연구한 사례는 찾아보기가 어렵다. 따라서 밥상머리교육이 중학생의 학교부적응 및 비행 행동에 어떠한 차이를 가져다주는지에 대한 연구는 매우 필요하며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필요에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밥상머리교육 실시여부가 중학생의 학교부적응 및 비행행동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고 밥상머리교육이 학교부적응 및 비행행동의 감소를 가져올 수 있는 요인이 되는지 그 효과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또한 밥상머리교육을 받는 중학생이라면 가족과 함께하는 가족식사의 기간과 가족과의 식사횟수, 식사 시간에 따라 학교부적응 및 비행행동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볼 것이며, 그리고 가족과 함께 하는 가족식사의 필요성에 대하여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인식정도에 따라 학교부적응 및 비행행동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은 향후 밥상머리교육을 실시하는데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밥상머리에서 배우는 밥상머리에절교육의 교육 빈도를 살펴보고 교육 빈도에 따라 학교부적응 및 비행행동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은 중학생의 인성교육을 위하여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라고 본다.

본 연구를 통해서 밥상머리교육과 중학생의 학교부적응 및 비행 행동의 연관성을 확인한 후 이를 통해 향후 학교부적응 및 비행행동을 예방하기 위한 가정에서의 올바른 인성교육의 대안으로 가정에서의 밥상머리교육과 연관지

어 탐색해 보고자 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으며,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서 밥상머리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 연구문제 및 가설

연구문제 1. 밥상머리교육 실시여부에 따라 중학생의 학교부적응 및 비행행동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가설 1-1. 밥상머리교육 실시여부가 중학생의 학교부적응에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1-2. 밥상머리교육 실시여부가 중학생의 비행행동에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연구문제 2. 밥상머리교육을 받는 학생의 경우 가족과 대화하며 식사한 기간과 식사횟수, 식사시간에 따라 중학생의 학교부적응 및 비행행동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가설 2-1. 가족과 대화하며 식사한 기간에 따라 중학생의 학교부적응에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2-2. 가족과 대화하며 식사한 기간에 따라 중학생의 비행행동에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2-3. 가족과 대화하며 식사하는 식사횟수에 따라 중학생의 학교부적응에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2-4. 가족과 대화하며 식사하는 식사횟수에 따라 중학생의 비행행동에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2-5. 가족과 대화하며 식사하는 식사시간에 따라 중학생의 학교부적응에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2-6. 가족과 대화하며 식사하는 식사시간에 따라 중학생의 비행행동에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연구문제 3. 밥상머리에서 가족과 함께하는 가족식사에 대한 인식 정도에 따라 중학생의 학교부적응 및 비행행동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가설 3-1. 밥상머리에서 가족과 함께하는 가족식사에 대한 인식 정도에 따라 중학생의 학교부적응에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3-2. 밥상머리에서 가족과 함께하는 가족식사에 대한 인식정도에 따라 중학생의 비행행동에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연구문제 4. 밥상머리에서 예절교육을 받는 빈도에 따라 중학생의 학교부적응 및 비행행동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가설 4-1. 밥상머리에서 예절교육을 받는 빈도에 따라 중학생의 학교부적응에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4-2. 밥상머리에서 예절교육을 받는 빈도에 따라 중학생의 비행행동에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3. 용어의 정의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용어인 밥상머리교육, 학교부적응, 청소년비행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1) 밥상머리교육

밥상머리교육이란 밥상머리에 가족이 함께 모여서 식사하며 대화를 통해 가족 사랑과 인성을 키우는 시간이다(교육과학기술부, 2012a)고 정의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 밥상머리교육이란 밥상(식탁)에 둘러앉아 가족끼리 함께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나누고 가족끼리의 시간을 가지는 것을 의미하며, 밥상머리 예절교육은 밥상에 가족끼리 둘러앉아 부모님이나 웃어른으로부터 배우는 전통적인

예절교육을 의미하는데, 하나, ‘어른이 먼저 수저를 들기 전에는 먼저 먹지 않는다’는 가르침에서 위계질서의 가치관과 절제와 공경의 의미를, 둘, 식사 전과 후에 ‘잘먹겠습니다, 잘먹었습니다’는 고마운 인사를 하도록 하는 것은 감사와 존중의 의미를, 셋, ‘밥상에 차려진 음식은 가족들을 배려하면서 함께 나눠먹는다’는 것은 타인을 배려하는 배려의 의미를, 넷, ‘음식을 고르지 않고 골고루 먹도록 한다’는 것은 절제와 가족건강의 의미를, 다섯, ‘자기가 먹은 그릇은 자기가 스스로 치우도록 한다’는 내용은 책임감과 협동심의 의미로 정의하였다.

2) 학교부적응

학교부적응이란 학교생활영역에서 여러 가지 부적응 행동 특성 등이 나타나는 것으로써, 이범재(1991)는 학교부적응을 학교생활의 적응과정에서 갈등과 욕구불만이 심하여 이로 인하여 생기는 긴장을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 학교생활에서 이탈하려고 하는 행위라고 정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학교부적응 행동을 교사와 대화를 꺼리거나 지시를 거부하거나 반항하는 교사관계에서의 문제행동과 친구와 어울리기 싫어하고 친구의 의견을 무시하거나 친구를 왕따 시키거나 공부를 방해하는 등 친구관계와의 문제행동, 수업시간에 집중하지 않고 주의가 산만하거나 학업에 관심을 가지지 않고 딴 짓을 하는 등의 학업관련문제행동, 또는 담배를 피우거나 지각, 결석을 자주하거나 하는 등의 학교규칙관련문제행동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하였으며, 구체적으로는 김혜영(2014)의 학교부적응 행동에 관한 측정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한 점수를 의미하며 학교부적응 행동의 하위요인을 교사관계영역(선생님에게 인사하기 싫다, 선생님과 대화하기 싫다, 선생님이 마음에 안 들면 반항한다, 어려운 일도 선생님에게 상담하지 않는다, 선생님이 시키는 일은 무엇이든지 하기 싫다 등), 교우관계영역(친구들과 어울리기 싫다, 친구들의 좋은 물건을 빼앗고 싶다, 내 의견을 무시하는 친구는 실컷 때려주고 싶다, 친구들과 한번 싸우면 끝까지 말을 하지 않는다, 친구가 공부하는 것을 방해한다, 힘이 없고 약한 친구를 괴롭히고 싶다 등), 학습활동관계영역(수업시작 벨이 울리면 교실에 들어가기 싫다, 시험만 생각하면 머리가 아프다, 수업시간에 공부보다 딴생각을 한다, 수업시간에는 잠

을 자주 잔다, 수업시간에 만화책을 본다 등), 학교규칙준수관계영역(나는 담배를 피운다, 학교를 그만두고 싶다, 아침 등교시간에 학교가 아닌 다른 곳으로 도망가고 싶다, 학교행사에 참여하기가 싫다, 거짓말을 하고 수업시간을 빼 먹는다 등)의 4개의 영역으로 구분하여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으면 학교부적응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3) 청소년 비행 행동

청소년 비행은 대체로 범죄로 불리는 행위를 비롯하여 부모가 어찌할 수 없는 일, 정당한 사유 없이 가정이탈, 유해장소 출입, 불량교우, 상습적 퇴폐, 성적행위, 자신이나 타인의 덕성을 해하는 행위 등 청소년에게 금지되어 있는 일련의 행위를 포함하는 것으로 개념을 정의하고 있는데(김영모, 1982; 경미현, 2013에서 재인용),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비행을 청소년에게 기대되는 사회적 규범에서 벗어난 반사회적 일탈행동과 형법을 위반하는 범죄행위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하였으며, 구체적으로는 경미현(2013)의 청소년비행행동에 관한 측정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한 점수를 의미하며 청소년비행의 하위요인으로는 도피비행(가출, 무단결석, 본드, 부탄가스, 신나 흡입, 유흥업소출입, 외박 등), 폭력비행(패싸움, 폭행, 공공장소의 기물파손, 친구를 의도적으로 괴롭힘 등), 재산비행(집안에서 돈이나 물건을 훔치기, 남의 물건 훔치기, 준비물이나 먹을 것을 억지로 빼앗기, 남의물건 훼손, 돈내기 도박 등), 성 비행(음란서적·음란비디오 보기, 음란사이트 접속, 이성과의 성관계, 퇴폐업소 출입, 길가는 여자(남자)희롱 등)의 4개의 하위요인으로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으면 청소년비행 행동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II. 이론적 배경

본 장에서는 연구 변인인 밥상머리교육과 학교부적응 및 비행 행동에 관한 선행연구, 문헌 등을 고찰해 봄으로써 본 연구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고자 한다.

1. 밥상머리교육

1) 밥상머리교육의 의의

우리나라에서 ‘밥상머리’란 사람이 밥상에 마주앉은 자리를 말하는데, 이는 단순히 음식을 먹는 곳이라는 개념만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나누는 모든 대화와 식사예절 등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며, 가족의 전통과 삶의 지혜가 두루 전수되는 교육의 현장이기도 하다(이영희, 2014).

옛날부터 우리는 어른과 함께 한 밥상머리에서 인생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덕목을 배웠다. 어른이 수저를 들기 전에 먼저 음식에 손을 대지 않고 기다리는 데서 어른에 대한 공경과 예절, 그리고 인내심을 배웠고, 가족 간의 대화와 소통을 통해 나의 생각과 다른 생각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능력을 키웠으며, 하나의 그릇에 담긴 음식물을 가족끼리 서로 나눠 먹으면서 배려와 절제를 깨우쳤다. 이처럼 밥상은 예절이 살아 숨 쉬는 곳이었고 어떤 잘못도 이해받는 화해의 공간이었으며, 삶의 철학이 대물림 되는 교육의 장이었다(SBS스페셜제작팀, 2015).

가족이란 함께 밥을 먹는 식구(食口)를 말하며, 음식은 사람들 사이의 유대감을 강화시키는 것으로 가까운 사람들일수록 식사를 함께하며 인간관계를 돈독히 하는 것이 문화적 관례이다. 즉, 밥상머리교육이란 가족이 모여 함께 식사하면서 대화와 소통을 통해 가족사랑과 인성을 키워주는 것으로 정의된다(서울대학교학부모정책연구센터, 2015). 김인희(2014)는 온 가족이 함께하는 밥상머리

야말로 자녀들뿐만이 아니라 어른들도 아이들과 함께 행복의 의미를 배울 수 있는 확실한 가정교육이라고 하였다. 즉, 음식을 대할 때 그것을 만드느라 수고한 분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가짐으로써 남들을 경쟁과 대결의 대상이 아닌 감사와 존중의 대상으로 대하는 원만한 인간관을 기를 수 있으며, 맛있는 것만 골라 먹으려는 버릇을 고침으로써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절제하는 습관을 기를 수 있다. 또한, 어른이 먹기 전에 먼저 먹는 버릇을 고침으로써 예절교육과 함께 위계질서를 존중하는 가치관을 심어줄 수 있다. 자기가 먹은 그릇은 스스로 치우고 정리함으로써 책임감과 협동심을 기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영희(2014)는 밥상머리는 내 자녀를 살리는 가정교육의 보물섬이며, 사람들은 한술밥을 먹으면서 협동심이 생기고 유대관계가 돈독해진다고 하였다.

이렇듯 우리의 밥상머리교육은 자녀들에게 절제와 배려, 예절과 공경, 인내심과 협동심, 책임감 등을 키워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며, 가족간의 유대관계를 가깝게 해주고 자녀들의 바른 인성을 심어줄 수 있는 교육의 장으로서, 오늘날 전문가들이 전하는 밥상머리교육의 내용도 옛 부터 우리의 가정에서 전수되어 온 우리 조상들의 밥상머리에서의 예절교육에서부터 출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밥상머리교육의 효과적인 사례

조선 후기의 가정 실학서인 규합총서에서는 조선시대 사대부 집안에서 음식을 먹을 때 염두에 두어야 할 다섯 가지를 정리해 놓은 ‘식시오관’(食時五觀)이 있는데, 식시오관이란, 첫째, 이 음식에 들어간 정성을 헤아린다. 둘째, 이 음식을 먹을 자격이 있는지 성찰한다. 셋째, 음식이 약이 되도록 골고루 먹는다. 넷째, 입의 즐거움과 배부름을 탐하지 않는다. 다섯째, 인성을 갖춘 후에야 음식을 먹는다는 내용으로, 옛 조상들이 식사할 때마다 이러한 다섯 가지의 마음을 헤아리도록 가르쳐주고 먹을거리를 귀하게 여기도록 지도하였다.

또한, 전체 노벨상 수상자의 30%를 배출한 유대인들은 밥상머리에서 인내심과 예절과 지혜를 가르침으로써 위대한 지도자를 길러냈으며, 가족과 함께 장을 보면서 일찍부터 경제관념을 배우게 했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교육적인 비밀이 밥상머리 속에 숨어 있음을 깨달았던 것이며, 밥상을 통해서 가족공동

체를 든든하게 세워왔다(이영희, 2014). 그들은 매주 금요일에 가족들이 모여 감사의 기도로 식사를 시작하고 식사시간이 의식처럼 성스럽게 지속되며, 자녀는 밥상에서 대화하면서 자연스럽게 예절을 익히고 전통을 접하며 감사하는 마음을 갖도록 한다. 그들은 자녀들이 어떠한 잘못이 있어도 밥상에서는 절대로 아이들을 혼내는 일이 없는데, 이것은 유대인 부모들이 밥상머리에서 나누는 가족과의 대화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한다(교육과학기술부, 2012a; sbs스페셜제작팀, 2015). 이처럼 유대인들에게 밥상머리는 공동체 의식을 전수하고 서로의 실수를 용인하고 남을 생각하는 태도를 갖도록 하며 가족의 전통이 전수되는 훌륭한 교육의 장이라는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또 한 예로 케네디가의 밥상머리교육을 들 수 있는데, 존 F. 케네디의 어머니 로즈 케네디 여사는 아이가 어릴 때 어떤 습관을 갖느냐가 미래 성공을 좌우한다는 생각으로 자녀들에게 가족 식사시간을 반드시 지키게 하였으며, 이것을 통하여 약속과 시간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었다. 또한 식사를 하는 동안에는 자녀들이 자유로운 토론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어서 이러한 가족식사 동안의 자유로운 토론을 통하여 자기의 의견을 논리적으로 말할 수 있도록 훈련하였으며 이러한 훈련이 훗날 존 F. 케네디가 대통령후보가 되었을 때 상대후보를 압도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되었다고 한다(박기용, 2013).

밥상머리교육의 효과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은 연구결과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첫째, 자녀들이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흡연, 음주 등 청소년들의 부적응 행동을 할 확률이 줄어든다. 콜롬비아 대학교 약물오남용 예방센터(CASA, 2011)에서는 가족과의 식사 횟수와 담배, 술, 약물사용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는데, 그 연구결과 가족과의 식사를 자주하는 청소년에 비해서 가족과 식사를 자주하지 않는 청소년들은 흡연비율 4배, 음주비율 2배, 마리화나 비율은 2.5배 높았고, 미네소타 대학교의 청소년 식생활조사(2004)에서도 가족식사의 빈도는 음주, 흡연, 마리화나 남용, 자살률, 우울증과 반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시네티 아동병원 블레이크 보우덴 박사 연구팀의 연구결과(2006)에서도 일주일에 5회 이상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하는 아동청소년은 약물중독, 우울, 부적응을 보일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교육부, 2015). 또한 이현아(2014)의 연구결과에서도 가족과 함께하는 가족식사 횟수가 많을수록 자녀의 학교생

활적응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연구결과들을 볼 때 가족과 함께 하는 가족식사는 자녀들이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음주, 흡연, 약물남용, 자살, 우울 등과 같은 부적응이나 비행 행동을 할 확률이 떨어짐을 알 수 있다.

둘째, 가족과 함께하는 가족식사 시간은 작은 예절수업시간이 된다. 밥상머리는 예절, 공손, 배려, 절제, 나눔을 배우는 곳이 되며, 약속과 같은 기본적인 예절을 지키도록 하는 것으로서 자녀들의 인성발달의 기본이 된다(교육과학기술부, 2012b). 우리나라의 사대부 가에서 대표적 명문가인 류성룡가의 교육관은 밥상머리에서 가족이 함께하고, 최소한 지켜야 할 것만으로도 자녀들에게 교육이 된다는 것이다(서울대학교 학부모정책연구센터, 2015). 즉, 어른이 먼저 수저를 들 때까지 음식을 먼저 먹지 않고 기다려야 하는 태도에서 절제를, 가족을 배려하면서 함께 나누어먹도록 하는 태도는 타인에 대한 배려를 익히는 훈련이자 습관이 되어 성공을 위한 기반이 된다는 것이다. 또한 식사가 차려지기까지의 모든 과정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잘먹겠습니다, 잘먹었습니다’는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차려진 음식은 한번씩 골고루 먹도록 하며, 젓가락으로 음식을 뒤적거리지 않는다는 등의 가족식사시간은 기본적인 예절을 지키도록 하는 예절수업시간이 된다.

셋째, 가족과 함께 식사하는 자녀들이 더 건강한 식습관을 가지게 되며, 자녀들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할 수 있다. 미네소타 대학교 EAT 프로젝트Ⅱ 조사결과(2010)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더 많이 하는 학생일수록 야채, 과일, 칼슘, 섬유소, 단백질, 철분, 엽산 등 청소년들의 성장에 필요한 영양소들을 더 많이 섭취하게 되고 탄산음료 등을 적게 마시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학생의 경우 가족과 함께 하는 식사를 더 많이 하는 학생일수록 잘못된 체중조절행동(다이어트 약 및 설사제 복용, 자기구토유발 등)을 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볼 때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하는 자녀들이 더 건강한 식습관을 가지고 있으며 균형 잡힌 영양을 섭취해 신체적으로 더 건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서울대학교 학부모정책연구센터, 2015).

넷째, 가족식사는 가족 간의 유대를 강화시켜주고 삶에 대한 행복감과 만족도를 증진시키는 역할을 한다. 콜롬비아 대학교 약물오남용 예방센터(CASA)의 연구(2011) 결과 가족과 식사를 자주하는 청소년들은 그렇지 않은 청소년들에

비해서 부모님과 형제자매와의 관계가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배희분, 옥선화, 양경선, Grace H. CHung, 2013)의 가족식사 빈도와 청소년 삶의 만족도에 대한 연구 결과에서도 아버지 또는 어머니와 함께하는 가족식사 빈도가 많을수록, 의사소통이 원활할수록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장영수(2013)의 연구에서도 가족과 함께 하는 가족식사 빈도가 많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족식사 빈도에 따른 부모와의 관계에서도 가족식사를 자주 하는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부모에 대한 신뢰, 부모와의 의사소통에서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이정선(2009)의 연구 결과에서도 가족과 함께하는 식사는 매우 중요하며(69.0%), 가족과 함께 하는 식사가 즐겁다(65.1%)고 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을 볼 때 가족과 함께 하는 가족식사가 아이들의 삶의 만족도와 행복지수에 영향을 주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섯째, 아이들의 사회성과 도덕성이 발달된다. 가족과 함께 하는 가족식은 단지 가족과 음식을 같이 먹는다는 행위만이 아니라 가족과 함께 식사를 준비하고 스스로 정리하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한다. 이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은 자기의 책임을 인식하고 실생활에 필요한 기능들을 배울 수 있다.(교육과학기술부, 2012b). 유계숙, 최혜림 외(2011)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 가족여가활동 및 가족식사활동 빈도가 많을수록 초등학생의 사교성과 준법성 향상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계숙 외(2011)는 이러한 결과는 가족과 함께 식사를 준비하면서 정해진 규칙을 지키고 부모의 지도를 받음으로 나타나는 결과이며, 또한 외식을 하는 경우에도 다른 사람들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지켜야할 규칙을 지키는 준법정신이 요구되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또한 김숙경(2014)의 연구결과에서도 밥상머리교육을 받는 중학생의 경우 그렇지 않는 중학생에 비해서 사회성 발달수준이 높게 나타났으며, 도덕성 발달수준에서도 준법성, 건진성, 친절성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볼 때 자녀들의 사회성이나 도덕성 발달에 중요한 요소가 가족과 함께하는 밥상머리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여섯째, 밥상머리교육은 자녀들의 인지발달에 매우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하버드대학교 캐서린 스노우 교수의 연구결과(1988-1989)에 의하면

아동의 언어발달에 가족과 함께 식사하면서 나누는 대화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연구결과를 밝혔다. 부모가 책을 읽어주기만 하면 어휘력은 달라지지 않으며 부모가 책을 읽어줄 때 아이가 배울 수 있는 단어는 140여개에 불과하지만 가족식사 중에 대화를 통해서 익히게 되는 단어는 1,000여개에 달하였다. 이는 밥상머리에서 가족구성원 사이에서 익힌 다양한 화제의 대화를 듣고 상황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통해 학습능력이 저절로 키워지게 되는 이유이다(sbs 스페셜제작팀, 2015). 콜롬비아 대학교 약물오남용 예방센터(CASA)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아이들이 성장발달에서 가족식사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발견한 CASA는 아이들의 가족식사를 조사하였는데 A-B학점을 받는 학생은 C학점을 받는 학생보다 가족식사 횟수가 현저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일본의 2007년, 2008년 전국학력평가에서 시골지역인 아키타현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결과에 일본열도가 모두 놀랐고, 이에 대한 원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아베노보루 교수가 연구한 결과 이 지역의 아이들은 다른 지역의 아이들보다 가족과 함께 하는 가족식사를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나 가족과 함께하는 가족식사가 학력평가에서 일등을 만든 주요 원인임이 밝혀졌다(교육과학기술부, 2012a). 이처럼 가족과 함께하는 밥상머리교육은 자녀들의 인지발달에 크게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가족식사를 하면서 부모와 자녀가 나누는 다양한 대화는 자녀의 어휘력 발달과 문제해결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등 학업성취와 직간접적으로 연결되고 있다(서울대학교 학부모정책연구센터, 2015).

이러한 연구결과들을 볼 때 가족과 함께 식사하며 나누는 밥상머리교육은 아이들의 기본적인 예절과 인성발달에 도움을 주며 부적응 및 비행 행동이 줄어들고 신체적으로도 건강을 가져다주며 인지발달에도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2. 학교부적응

1) 학교부적응의 개념

학교생활이란 학생들이 학교라는 환경 내에서 받는 교육적 영향의 총체를 의미하며 학교생활의 구성요소로는 학생상호관계, 교사와 학생과의 관계, 학급생활 등이 포함된다(김혜경, 2008). 또한 학교 적응이란 학습자가 학교 내의 교우관계, 교사관계, 여러 가지 학교환경 등에서 유발되는 스트레스에 잘 대처하는 일련의 노력으로서 학습자의 요구를 학교 상황의 제반욕구에 맞게 잘 조절하고 학교 내에서의 현실적인 가능성을 고려하여 학교생활에서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에 따라 신중하게 대처하려는 학습자의 시도이다(김용래, 허남진, 2003; 김혜영, 2014에서 재인용). 인간은 개인의 욕구가 집단의 문화와 결속에 반하면 대부분 그 욕구를 조절하고 적응하는 행동을 하게 되는데 부적응 행동은 개인의 욕구가 집단의 문화나 집단과의 결속에 반하여 주변 환경과 충돌할 때 이러한 상황을 원만히 유지하기가 힘들어지면 부적응 현상이 나타난다고 하였다(전재천, 2000).

학교생활에 대한 부적응은 학자나 연구자에 따라서 그 개념이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는데, 이범재(1991)는 학교부적응의 개념을 학교생활에 적절히 적응하지 못하여 갈등이나 욕구불만이 심하고 이로 인한 긴장이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음주, 흡연, 무단결석, 가출 등 학교생활에 일탈하려는 행위라고 정의하였다. 즉, 가출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거나 학습의욕이 결여되고 교사관계, 교우관계 등 원만한 대인관계를 형성하지 못하며 자신감과 자존감이 결여되고 불건전한 이성교재, 집단폭행, 유흥업소 출입 등 학교생활에서 일탈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김기태(1991)를 비롯한 여러 학자들(김기태 외, 1996; 유영덕 외, 1996; 김현주, 2000; 김지현, 2002; 이경화 외, 2005; 한선미, 2014)은 학교부적응을 여러 가지의 행동특성들이 학교생활영역에서 나타나는 것으로서, 개인의 욕구가 학교 내의 환경과의 관계에서 충족되지 못하거나 수용되지 못함으로써 갈등과 부적절한 행동을 보이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즉, 학교부적응이란 개인의 욕구가 학교 내부에서 올바르게 수용되거나 만족되지 못하여 갈등이 일어나는 것으로 부적응적 행동특성이 대인관계의 갈등, 학습활동에 대한 동기저하, 학교규칙 준수위반 등의 형태로 표출된다고 하였다. 최창숙(1993)은 학교부적응 행동을 학교에서의 교우관계와 교사관계, 학교규칙준수관계와 학습활동관계로 나누어지며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는 청소년들은 학교에 대한 감정 등이 원만하다고 하였다. 그러나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청소년들은 주위가 산만하여 학업성적이 떨어지거

나 방어적인 태도를 가지게 되는데 이런 기간이 지속되면 실패감이 누적되어 여러 형태의 학교부적응 원인이 되므로 성공적인 학교생활적응이 개인에게 있어 중요한 발달과업 중 하나라고 주장하였다(Rutter, 1985; 최창숙, 1993; 김혜영, 2014에서 재인용). 김연순(2001)은 중·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청소년이 여러 가지의 개인적, 가정적, 사회적 환경과의 갈등으로 인해서 자신의 욕구를 해결하지 못함으로써 교칙위반, 학습태만, 가출, 폭력, 음주, 흡연, 약물오남용, 금품갈취, 불량교우관계 등의 일탈 행동으로 인하여 학교생활을 원만히 수행하지 못하는 상태를 학교생활 부적응이라 보았다. 또한, 주의산만, 집중력부족과 같은 학업과 관련된 문제행동이나 학교규칙을 위반하고 교사의 지시나 요구를 거부하는 등의 공격적이고 반항적인 행동 등이 학교생활영역 내에서 나타나는 것이 부적응 행동이라고 하였다(조봉환, 임경희, 2003). 또한 학교부적응 청소년들은 학교내 환경과의 관계에서 충족하지 못하여 자포자기, 불평, 불만, 갈등, 무능력, 파괴적이고 공격적인 행동 등의 특성을 나타내며 불균형 상태에 놓이게 되어 사회생활을 원만히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하였다(이경화, 손원경, 2005; 김혜영, 2014에서 재인용). 박미정(2012)은 부적응은 개인과 환경과의 관계에서 적절하지 못한 부조화를 이루는 상태로서 개인의 욕구나 감정, 사상 등이 사회의 규범에서 허용되지 못하는 경우이며, 이러한 부적응 반응은 심리적, 사회적, 신체적으로 생긴다고 하였다. 김혜진(2013)은 부적응의 개념을 친구와 교사와의 바람직한 대인관계를 만들며 유지하는 능력이 부족하거나 위축되고 억압되거나 불행하다는 기분에 사로잡혀 매사에 자신감이 결여되고 소극적이 되어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하였다. 즉 개인이 학교의 교육적 가치와 규범 그리고 질서에 합당한 행동을 못하거나 사회적 환경에 대한 개인의 행동양식이 불균형 상태에 놓이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처럼 학교부적응에 대한 개념들은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는데, 특히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넘어가는 인생의 중요한 시기의 청소년들이 학교생활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 폭력, 금품갈취, 가출, 퇴폐업소 출입 등의 일탈행동으로 나타나 성인기에 까지 연결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는 점에서 청소년들이 학교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인성교육의 강화 등 적극적인 대처방안이 필요하다.

2) 학교부적응의 유형

학교부적응을 유형화 시킨 연구를 보면 김성이(1997)는 학교생활 부적응의 유형을 학업과 관련된 유형, 약물 남용과 관련된 유형, 타인과 관련된 유형, 성과 관련된 유형의 4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학업과 관련된 유형은 학습부진, 수업태도불량, 잦은 지각, 무단결석 등이며, 약물 남용과 관련된 유형은 음주, 흡연, 본드, 신나 등의 환각제사용, 각성제 복용 등이며, 타인관련 유형은 남의 기물 파손, 갈취, 반항, 도벽 등이며, 성과 관련된 유형은 이성교제, 성경험, 임신 경험 및 성과 관련된 고민을 포함시켰다.

이경은(1998)은 부적응 행동의 유형을 학업과 관련된 유형, 정서와 관련된 유형, 대인관계와 관련된 유형, 성과 관련된 유형, 약물남용과 관련된 유형 등 5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는데, 학업과 관련된 유형은 학습부진, 학업분위기 저해, 무단결석, 수업태도 불량 등이며, 정서와 관련된 유형으로 지나친 정서적 불안감, 소외감, 무기력감, 낮은 자존감, 충동성향, 공포, 우울 및 자살기도 등을 들었다. 대인관계와 관련된 유형으로는 반항, 공격성, 지나친 수줍음, 갈취, 도벽, 폭력행사 등이며, 성과 관련된 유형으로 이성교제, 성경험, 임신경험 등과 같은 성과 관련된 고민이며, 약물남용과 관련된 유형 등이다.

이규미(2004)는 중·고등학교 교사가 지각한 학교부적응 행동 유형을 수업 및 학업관련 행동 유형, 문제행동 유형, 교우관계 유형, 교사관계 유형, 공격·적대적 행동 유형, 우울반응 등의 6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또한 이동훈과 정원식(2007)은 학교부적응행동의 유형을 일곱 가지로 분류하였는데, 첫째, 정서적 부적응과 관련된 내재화 문제로 낮은 자존감, 무기력감, 우울성향, 불안, 충동성향, 불만, 이상행동, 지나친 수줍음, 시험이나 학교에 대한 공포 및 자살기도 등을 포함한다. 정서적 부적응을 나타내는 청소년들은 학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어서 학교생활과 자신을 일치시키지 못하고 학교에서 배우는 것이 자신의 욕구와 관련이 없다는 느낌을 가지며 학교생활에 대한 성취동기화가 부족하여 의지가 없고 자포자기적이며 감정적으로 불안하고 사회적인 고립의 특성을 보인다. 이들은 심리적 스트레스와 불안 등으로 교우관계에서 소외될 수 있다는 심리적 위축과 대인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으

며 학교생활의 적응이 어려워 학업중단의 길을 택하거나 사회적 부적응자로 전락하기도 한다.

둘째, 문제행동 및 품행에 관한 외현화 문제로 언어폭력, 사이버(휴대전화)폭력, 금품갈취, 집단따돌림 및 괴롭힘, 인터넷 관련 비행과 청소년 성매매 등 학교 폭력과 같은 공격행동 등을 포함한다. 셋째, 수업 및 학업과 관련된 행동으로 학습부진, 학습분위기 저해, 수업태도 불량, 잦은 지각, 무단결석 등을 포함한다. 학습부진은 학생에게 요구되는 정상적인 학습정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태로 흔히 무단결석, 조퇴 등의 태도가 수반되어 청소년기에 학업성취, 진로결정 등의 중요한 발달과업을 성취해야 함에도 열등감이나 낮은 사회성 등의 심리적 현상으로 쉽게 포기하고 좌절하며 정서적 부적응을 동반하는 특성을 나타낸다.

넷째, 교사-학생과 관련된 유형으로 교사와의 관계, 교사에 대한 태도, 학교분위기 등이 포함된다. 교사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일수록 교사와의 관계가 우호적이며, 교사와의 관계가 만족스러울수록, 긍정적일수록 학교의 분위기가 민주적이고 학생들이 학교 적응을 잘하게 되며, 교사-학생관계가 갈등관계에 놓이게 되면 학교는 학생에게 스트레스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그러한 어려움은 학생들의 불안, 위축, 분노감정, 외로움 등 학교생활에 대한 부정적 태도와 소외감을 증대시키는 원인이 된다. 다섯째, 부모-자녀관계와 관련된 유형으로 부모와의 의사소통, 정서적 친밀정도, 지도감독과 관련된 부모-자녀 간 애착관계, 가정문화, 부모의 훈육방식, 가족응집력, 역할모델로서의 부모역할의 중요성 등 가족 간의 상호작용에 관한 내용 등을 포함한다. 부모-자녀 관계는 개인의 정서적 발달, 비행과 같은 문제행동, 학업성취나 적응 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부모와의 정서적 결속감이 높을수록 비행을 덜 하는 경향이 있으며,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이 개방적이고 긍정적일수록 청소년의 문제행동은 줄어들어 학교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부모로부터 거부경험이 많을수록 학교적응 수준이 낮고, 부모의 양육태도가 민주적이고 애정적이고 자율적인 경우에 아동의 능동적이고 외향적이며 독립적 성격을 갖도록 도와준다. 여섯째, 위축·회피와 관련된 또래관계 유형으로 친구관계에서 소극적이고 활동성이 낮으며 왕따나 소외와 같이 친구관계와 관련한 학교부적응 행동을 포함한다. 또래관계가 좋은

아동은 심리적으로 건강하여 적응을 잘 하지만, 또래관계가 원만하지 않은 아동은 사회적 부적응을 나타낼 위험이 높다. 또 이 시기에 또래관계를 좋은 관계로 맺지 못하고 또래들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하고 거부당하는 아이들은 불안, 우울, 위축, 외로움 등 적응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다른 아동에 비해서 학업성적이 낮고 학교결석이 잦은 편이다. 일곱째, 갈등·공격과 관련된 또래관계 유형으로 친구관계에서 공격적이고 갈등관계의 행동 특성을 보이고 친구들과 부정적인 상호작용의 경험 등의 학교부적응 행동을 포함한다. 아동은 또래관계와 친밀하고 인정받는 등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많이 하면 학교적응이 긍정적이지만 갈등과 경쟁이 높으면 학교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며, 친밀과정서적지지 등 긍정적 특성이 강한 친구관계는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등 심리적 적응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김혜영(2014)은 학교부적응의 유형을 교사관계영역, 교우관계영역, 학습활동관계영역, 학교규칙준수관계영역 등 4개의 영역으로 유형을 구분하였고, 교사관계영역에서는 선생님과 대화하기 싫다, 선생님이 마음에 안 들면 반항한다, 어려운 일도 선생님에게 상담하지 않는다 등 교사 관계에서의 부적응, 교우관계영역에서는 친구들과 어울리기 싫거나 친구들의 좋은 물건을 빼앗고 싶고, 내 의견을 무시하는 친구는 실컷 때려주고 싶다 는 등의 교우관계에서의 부적응 유형이며, 학습활동관계영역으로는 수업시작 벨이 울리면 교실에 들어가기 싫다거나 시험만 생각하면 머리가 아프다, 수업시간에 공부보다 딴생각을 한다 등의 학습활동과 관련된 부적응이며, 학교규칙준수관계영역에는 담배를 피우거나, 학교행사에 참여하기가 싫다거나, 거짓말을 하고 수업시간을 빼 먹는 등의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다.

3) 학교부적응의 원인

학교부적응의 원인은 한 가지 원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경우는 드물며 복잡한 원인들이 종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학교부적응에 대한 원인을 선행연구를 통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김동하(1992)는 학교부적응의 원인에 대하여 개인내적인 요인과 외적인 환경

요인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내적인 요인으로는 신체적 결함, 지능저하, 정서장애 등이 있고, 환경적 요인으로는 가정환경, 학교환경, 지역사회환경 등이 있는데, 학교 부적응은 하나의 요인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요인의 상호작용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하였다. 정유진(1999)은 학교부적응의 원인으로 부모의 학력이나 직업, 또는 소득과 같은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원인이 될 수 있으며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을수록 학교생활 부적응이 높아진다고 하였다. 그리고 조미숙(1999)은 자녀의 가정폭력 목격만으로도 학생의 학업수행, 사회성, 비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며, 유안진 외(2003)는 청소년기의 학교적응은 가정생활의 반영이며 이후의 사회생활 적응의 중요한 토대가 된다는 점을 강조하였으며, 부모의 양육행동이 온정적인 경우 자녀와 교사와의 관계가 좋아지고 학교규칙을 더 잘 준수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 또한 가정에서 부모와의 원만한 관계여부가 학교부적응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박연수(2003)는 학교부적응의 원인을 이혼가정이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에서 학교부적응은 가정환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였으며, 박근수(2003)는 비민주적인 교육과정을 강요하는 것 또한 많은 학생들이 학교생활 부적응을 경험하게 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고 하였다. 특히 중학교 시기에 급격한 신체적, 정신적, 환경적 변화에 적응을 잘 하지 못하여 초등학교에서 경험해보지 못한 다양한 학과목에 대한 부담감으로 인한 해당 과목 교사들과의 원활하지 못한 상호작용과 또래관계에서 오는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학교적응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요인이 된다고 하였다.

또한 구본용(2004)은 여러 원인들 중에서도 낮은 포부수준, 낮은 자존감, 정서문제 등과 같은 심리적 원인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원종아(2010)는 청소년기는 감정의 기복이 심한 사춘기로 낙관적인 감정과 비관적인 감정이 교차되어 자부심과 수치심을 강하게 경험하게 되는데, 도덕성과 규범이 엄격하게 요구되는 사회에서 청소년은 자신의 감정에 수치심을 느끼고 이를 억제하면서 부정적인 감정을 형성하게 되고, 이로 인하여 자신의 감정에 충실하기가 힘들어지면서 억제의 끈이 깊어지고 결국 부적응을 일으키는 요인이 된다고 하였다. 김종필(2008)은 청소년의 학교부적응 원인으로 사회환경적 요인을 들고 있

는데, 청소년이 생활하는 중요한 장이 되고 있는 사회 환경은 청소년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며, 또한 사회 환경 안에서 청소년들은 여러 가지를 모방하고 학습하게 되는데 우리사회 주변에 범람하고 있는 유해환경, 선정적이고 퇴폐적이며 폭력적인 대중매체, 인터넷 중독 및 스마트 중독, 폭력범죄 발생 등 혼란과 갈등을 경험하면서 학교부적응의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고 하였다. 박승희(2008)는 가정적인 요인이 학교 부적응의 근본적인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즉, 가정환경으로 인한 청소년들의 불안과 스트레스가 많은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데 청소년들의 문제 행동을 다스리고 수용하기에는 부모님의 역할이 부족하기 때문에 반복적이고 순환적으로 문제행동이 일어나게 되며 가정불화로 인해 자녀와 대화부족, 가족결속력의 약화, 애정약화, 무관심한 가정교육으로 인해 부정적인 행동, 반사회적인 행동, 성 정체성의 혼란을 경험하게 되는 등 가정적 요인이 학교생활의 부적응에 중요한 원인으로 보고 있다. 김혜영(2014)은 부모 또는 양육자로부터의 신체적 학대와 정서적 학대, 그리고 방임이 교사관계, 교우관계, 학습활동관계, 학교규칙준수관계 등 학교부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을 연구결과에서 밝혔다. 강귀애(2015)는 청소년의 공격성과 대인관계 및 학교부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 부모-자녀의 애착관계가 청소년의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며, 부모-자녀 간의 애착관계가 높을수록 청소년의 공격성이 낮고, 부모-자녀 간 애착관계가 높을수록 학교부적응 수준이 낮다고 하였으며, 부모-자녀 간 애착관계가 높을수록 청소년의 대인관계 수준이 높다고 하였는데, 이는 부모-자녀 간 가족관계가 청소년의 학교부적응의 원인의 하나라는 것을 보여준다.

이처럼 학교부적응의 원인은 부모의 양육행동, 부모-자녀의 애착관계, 가정불화, 가정폭력, 가족결속력, 사회적 유해환경, 폭력적이고 퇴폐적인 대중매체 등에 의한 피해 등 여러 가지를 원인으로 들고 있는데 예민한 청소년기에 있는 자녀들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가정에서의 따뜻한 가족애일 것이다. 가족 간의 사랑과 돈독한 유대관계로 자신감과 자존감이 향상되도록 함으로써 학교 생활에 원만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하고, 유해매체 접근 방지 등을 위한 가정과 학교와 사회가 함께 노력하여야 할 부분이다.

3. 청소년 비행

1) 청소년 비행의 개념

청소년의 사전적 의미는 청년과 소년을 아울러 이르는 말이라고 되어 있고, 우리나라의 ‘청소년기본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하며(제3조 제1호), 또한 ‘청소년 보호법’에서는 청소년이란 만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제2조 제1호). 또한 소년법에서는 “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자를 말하며 법적인 개념인 소년범죄에 대한 규정은 소년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현행 소년법에서는 소년의 보호사건으로 심리를 받아야하는 소년을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첫째, 죄를 범한 소년, 둘째,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 셋째,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고 그의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인 소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앞으로의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는 첫째,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性癖)이 있는 것, 둘째,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는 것, 셋째,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벽이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성구(2000)는 비행이란 넓은 의미로 제 법률 위반행위와 도의에 어긋나는 반사회적 행위까지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이라 정의하고 있으며 청소년 비행을 사회학적 측면, 법적인 측면, 심리학적 측면의 3가지 차원으로 설명하였다. 사회학적인 측면에서의 청소년 비행은 실질적으로 보호되어야 할 연령에 있는 청소년이 사회의 통상적인 기대에 반하여 사회의 규범행동으로부터 이탈하는 행위라고 정의하였다. 법률적인 측면에서는 법률에 규정되는 과거의 행위뿐만이 아니고 장래에 죄를 범할 가능성 및 환경의 영향까지 광범위하게 포함한다고 하였으며, 심리학적인 측면에서는 사회와 소속집단에 대한 부적응 행위를 의미한다고 하였다. 진복선(1997)은 소년비행을 협의의 비행으로, 반사회적 행동을 광의의 비행으로 구분하였으며, 지선주(2000)는 반사회적 행동과 비사회적 행동 모두를 청소년이라는 지위와 연결시켜 지위비행으로 비행을 정의하였다. 고현자(2000)는 법률적, 사회적, 도덕적, 교육적 측면을 감안하여 비행의 의미를 해석하였는데, 법률적 측면에서는 법률 위반을, 사회적 측면에서는 사회의 규범 위반을, 도

덕적 측면에서는 도덕규범을, 교육적 측면에서는 교육기관의 규범을 위반한 행위를 의미하며 비행의 개념을 법률적, 사회적, 도덕적, 교육적 의미를 총 망라한 의미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청소년 비행은 청소년의 문제행동보다 좁은 의미라고 볼 수 있는데 비행은 법으로 금지된 행동을 청소년이 행하는 경우이며, 문제행동은 법으로 금지된 행동뿐만 아니라 법은 위반하지 않았더라도 반사회적이고 공격적인 행위(예, 괴롭힘, 패싸움 등)를 포함한다(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3). 김준호(1999)는 청소년 비행은 청소년이라는 특성상 범죄행위만이 아닌 음주, 흡연, 무단가출, 무단결석, 유흥장 출입, 성행동, 학교폭력 등의 부적응 행동이나 청소년의 지위에 맞지 않는 금지된 행동 등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개념이라고 하였다. 정귀화(2002)는 청소년 비행을 법적 정의에 의한 비행청소년과 현행법으로는 저촉되지 않지만 도덕, 사회, 윤리규범에 어긋나는 비도덕적 행위와 사회규범을 위반한 행위, 미성년자에게 금지된 행위, 다른 사람과 사회에 피해를 줄 수 있는 행위 등의 가벼운 비행까지도 포함된다고 정의하였다. 김혜리·이혜원(2007)은 청소년 비행을 형법에 규정된 범죄행위와 미성년자로서 지켜야 할 수칙을 위반한 행위로 정의하였다. 양점도·박영국(2009)도 청소년 비행을 청소년이 행하는 법률적인 범죄적 행동과 사회규범적 도의에 어긋나는 반사회적 행동까지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보았으며, 김영모(1982)는 청소년비행은 사회학적,심리학적, 법률적 내용에 있어서 공통된 것은 없으며, 법률적 저촉여부를 불문하고 사회환경과 연관되어 일반적 가치체계를 수반하거나 대체로 범죄라 불리는 행위를 비롯하여 정당한 사유 없는 가정이탈, 유해 장소 출입, 부모가 어찌할 수 없는 일, 상습적 퇴폐, 불량교우, 성적 행위, 타인의 덕성을 해함은 물론 자신을 해하는 등의 청소년에게 금지되어 있는 일련의 행위라고 하였다. 양돈규(2000)는 청소년비행이란 사회적, 법률적, 도덕적, 교육적 측면에서 청소년에 의해 행해지는 위반행동 혹은 그릇된 행동이라고 정의하였고, 그 적용범위는 대체로 가벼운 문제행동에서부터 강간, 강도, 살인과 같은 심각한 범죄행동에 이르기까지 그 정도와 범위가 다양하다고 하였다. 경미현(2013)은 청소년 비행이란 좁은 의미로는 미성년자들이 옹지 못한 행동 등 비교적 가벼운 일탈 및 문제행동을 의미하며, 넓은 의미로는 범죄도 포함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렇듯 청소년 비행의 개념에 대해서는 제 법률 위반행위 및 도의에 어긋나는 행동, 청소년의 지위 때문에 범죄로 인정되는 행위, 사회규범에 일탈하는 행동 등

포괄적인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청소년 시기에 어떠한 경험을 하면서 성장하였는가 하는 문제는 성인이 된 이후까지 연결될 수 있는 중요한 사회문제 라는 점에서 청소년 시기의 비행 예방은 가정과 학교와 지역사회가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2) 청소년 비행의 유형

청소년 비행의 유형에 대해서도 학자나 연구자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하고 있는데, 김준호(1996)는 지위비행, 재산비행, 폭력비행, 도피비행 등 4가지로 나누고 있는데, 이성간의 성관계를 지위비행으로 분류하였고, 약물사용을 도피비행으로 분류하였다. 여기서도 폭행, 절도, 성행위 등이 주된 청소년 일탈 유형으로 제시되고 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1996)은 청소년 비행의 유형을 크게 지위비행, 도피비행, 폭력비행, 재산비행 등 4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였으며, 먼저 지위비행은 어른이 하였을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청소년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행위로, 음주, 흡연, 성관련 행동 등이 포함된다. 도피비행은 약물관련 비행, 가출, 무단결석 등의 행동유형이며, 폭력비행은 타인에게 피해를 입힐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행하는 행동으로 언어적, 신체적, 정서적 공격 등이 포함된다. 재산비행에는 다른 사람의 돈이나 물건을 훔치거나 훼손하는 행동이 포함된다.

전영실(2002)은 청소년 비행을 경비행과 중비행으로 구분하였으며, 경비행에는 취할 정도로 술마시기, 담배피우기, 시험부정행위, 유흥업소출입하기, 음란서적이거나 음란비디오, 음란만화보기, 무단회박, 무단결석, 가출, 다른사람과 사소한 몸싸움으로 분류하였으며, 중비행으로는 약물범죄, 재산범죄, 폭력범죄, 기물파손범죄로 구분하였는데 비행의 각 항목으로는 본드, 가스흡입, 다른사람을 심하게 때리기, 패싸움하기, 공공기물파손하기, 고위로 학교물건파손하기, 다른사람을 협박하여 돈이나 물건 빼앗기, 가게에서 돈이나 물건 훔치기, 학교에서 돈이나 물건 훔치기, 집안에서 돈이나 물건 훔치기 등으로 구분하였다.

송인정(2008)은 청소년 비행을 지위비행, 도피비행, 폭력비행, 재산비행, 성비행 등으로 분류하였으며, 지위비행이란 흡연, 음주, 유흥업소 출입 등 청소년들이 해서는 안 되는 금지된 행동을 뜻한다. 즉, 행위자체가 경미하여 형법으로 처벌하

기는 무리가 있으나 이를 방치 할 경우 성인이 되어도 범죄행동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 행동으로, 이에 대한 가정과 학교와 지역사회의 끊임없는 관심으로 이를 지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도피비행이란 무단결석, 무단가출, 본드·가스흡입, 환각제 이용 등과 같이 위험한 것을 접하는 것을 뜻하며, 폭력비행이란 협박, 패싸움, 흉기소지, 폭주족과 어울리는 등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히는 행동을 뜻한다. 또한 재산비행에는 남의 돈, 남의 물건 등을 훔치는 것과 같이 물질적·정신적으로 피해를 입히는 행동을 의미하며, 성 비행은 성관계, 퇴폐업소 출입, 음란도서, 음란비디오, 음란 인터넷 사이트 등을 이용하는 등의 부적절한 행동을 뜻한다.

이미영(2010)의 연구에서는 재산범죄, 폭력범죄, 지위범죄로 청소년비행을 범죄유형으로 분류하였으며, 김현욱(2012)은 공공질서비행, 지위비행, 대인비행, 재산비행, 은둔비행의 5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공공질서비행에는 부모나 교사에 대한 반항, 무단결석, 무단가출, 시험부정행위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지위비행에는 미성년자 출입금지구역 출입 등 제도적으로 청소년에게 금지된 행동을 하는 정도, 은둔비행에는 환각제 및 마약복용, 음란비디오, 음란 잡지, 음란 영화를 보는 행위, 음란만화를 보는 행위, 이성과의 성관계 등을 들고 있다.

윤여원(2014) 또한 비행의 유형을 지위비행, 폭력비행, 재산비행, 도피비행, 성 비행 등 5가지로 구분하였는데, 지위비행은 성인이라면 해당되지 않지만, 청소년이기 때문에 비행으로 간주되는 일탈행동으로 흡연, 음주, 시험 컨닝하기, 학교 수업 빼먹기, 무단외박, 클럽·술집 출입, 남을 속이기, 부모님·선생님께 반항하기, 학교 낼 돈을 다른 곳에 쓰기 등의 항목이 포함된다. 즉, 행위자체가 경미하여 형법으로 처벌하기는 무리지만, 이를 방치할 경우 성인이 되어 범죄행동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 행동이다. 폭력비행은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타인에게 물리적으로 강제 한 문제행동으로 즉흥적·충동적인 우발적 범죄가 제일 많다. 폭력비행에는 협박이나 조롱하기, 패싸움, 흉기소지, 폭주족 경험, 가족 또는 남을 때리고 상해 입히기 등의 행동이 포함된다. 재산비행은 타인의 재물을 의도적으로 취득하는 문제행동으로, 남의 돈이나 물건 빼앗기, 남의 돈이나 물건 훔치기, 도박, 방화, 집에서 금품 훔치기, 다른 사람 집에 무단침입하기 등의 행동유형이며, 도피비행은 무단결석, 무단가출, 본드·가스 흡입 등과 같이 사회 도피적 행동유

형을 말한다. 이 비행은 행위 자체는 타인에게 피해를 크게 입히지는 않지만 성장기에 있는 청소년의 성장 발달에 장애를 결정적으로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 성비행은 성희롱, 성관계, 퇴폐업소 출입, 음란물 이용 등의 부적절한 행동유형을 뜻한다. 성비행은 타인에게 결정적인 불명예나 심리적인 질병에 시달리게 하는 등 심리적인 상처를 크게 입힐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된다. 경미현(2013)은 청소년의 비행을 도피비행, 폭력비행, 재산비행, 성비행으로 분류하였다. 첫째, 도피비행은 무단결석, 가출, 본드, 가스, 신나 흡입, 비디오방 출입, 유흥업소 출입, 외박 등과 같이 위험한 것을 접하는 것을 의미하며, 둘째, 폭력비행은 공공 기물파손이나 다른 사람의 물건을 부수는 일, 다른 사람 폭행, 패싸움 등 신체에 해를 가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다른 아이의 돈이나 물건을 억지로 빼앗거나 억지로 심부름을 시키기 등의 신체적인 피해를 입히는 비행 행동도 포함한다. 셋째, 재산비행은 자기 집에서 돈이나 물건 훔치기, 남의 물건 훔치기, 돈내기 도박, 흥기소지, 준비물이나 먹을 것을 억지로 빼앗기, 가방, 신발 등 남의 물건 훼손하기 등과 같이 물질적으로 피해를 입히는 행동유형을 뜻한다. 넷째, 성비행은 음란서적·음란비디오 보기, 음란사이트 접속하기, 퇴폐업소 출입하기, 이성과의 성관계 등 청소년으로서 부적절한 행동유형을 의미한다. 이러한 청소년 성범죄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매매와 강제로 청소년의 성을 유린하거나 성을 취하는 강간, 매매춘, 간음, 추행, 유흥업소 불법 고용 등이 해당된다.

3) 청소년 비행의 원인

청소년 비행의 원인은 청소년을 둘러싸고 있는 부적절한 환경과 여건에 의해서 발생한다고 할 수 있는데, 고성혜(2000)는 청소년 비행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심리 사회적 요인을 들고 있으며 청소년들의 낮은 자존감, 대인관계 미숙, 낮은 도덕성, 문제 해결능력 부족, 자아개념, 공격성, 충동성, 초기 비행 시기 등 다양한 개인적 특성이 비행을 발생시키는 요인과 관계된다고 하였다.

그동안 청소년 비행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그 원인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며, 학자들은 개인의 기질이나 특성에 의한 개인적인 요인과

개인외적인 환경적인 요인으로 연구가 진행되어 왔는데 선행 연구를 보면 가족환경요인이 원인인 경우로 청소년기에 있어 가정은 개인의 성장과 발달에 가장 중요한 집단이며, 가정은 가장 먼저 자녀들이 언어와 인간관계를 배우고 규칙과 질서를 학습하는 곳이고, 가정에서 학습되는 인성, 사회성, 도덕성, 심리 정서적 발달, 신체적 건강발달 등은 성인이 된 이후의 사회생활에도 평생을 통하여 청소년의 삶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며 가정에서의 부모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권이중, 2001). 이에 대한 선행연구는 부모애착, 부모학대, 부모와의 의사소통, 가정결손, 부모와의 관계, 가정폭력, 가족응집력 및 가족적응, 가족탄력성(신동숙, 2007; 김준호, 정혜원, 2009; 양점도, 박영국, 2009; 최규련, 2010; 이미영, 2010; 김재엽, 남보영, 2012; 이재경, 2012; 김선경, 2013; 경미현, 2013; 조성순, 2013; 윤여원, 2014; 손윤옥, 2014; 임정아, 2015; 조제성, 김현동, 2015) 등을 원인으로 들고 있으며, 자아 및 개인적 특성요인이 원인인 경우로써 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 정신건강요인, 자기조절능력, 자기통제력, 삶의 만족도 등을 청소년 비행의 원인으로 들고 있다(김영희 등, 2004; 박영신 등, 2006; 김혜경, 2007; 박영신, 김의철, 2010; 이미영, 2010; 허진아, 2012; 이영경, 2013), 또한 학교환경요인이 원인인 경우로 학교는 청소년들의 사회화의 수단 및 사회적 지위를 결정해주는 역할을 하기도 하며, 학교는 그 자체가 청소년들의 공동생활의 장으로 학생들은 그 속에서 모든 것을 체험하고 학습하게 된다. 학교환경요인으로는 교사와 학생간의 관계, 학생들의 친구관계, 성적위주의 학생평가와 입시위주의 교육 등의 문제점으로 오늘날 청소년들의 비행에 중요한 원인(김세진, 2000; 김태균, 2007; 박지경, 2009; 이해경, 2015)이 되고 있으며, 정신·심리적 요인과의 관계로 학업스트레스, 자살생각, 낙인, 우울, 학교폭력, 사이버폭력, 진로장벽 등을 원인(박재연, 정익중, 2010; 김재엽 등, 2013; 이경숙, 2013; 이유신, 2013; 김은진, 2015; 최명진, 2015; 이종남, 2015)으로 들고 있는 등 청소년 비행의 원인에 대해서 다루어졌다. 최근의 몇 가지 연구 사례들을 보면 신동숙(2007)의 연구에서는 청소년비행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요인으로 부모의 애정적, 지지적 양육태도가 자녀의 비행을 낮추는데 영향을 미치며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에서도 독단적 의사소통이 아닌 자녀를 존중하는 개방형 의사소통이 청소년비행을 예방하는데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정혜미(2008)의 연구 결과 또한 부모와 자녀의 애착정도가 높으면 청소년 비행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청소년비행의 원인이 가정 내의 요인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박지경(2009)도 그의 연구에서 부모와의 애착정도가 높을수록 청소년 비행 정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이 또한 청소년 비행요인이 가정특성요인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이미영(2010)의 연구에서는 부모의 양육태도가 좋다고 평가될수록, 부모의 자녀에 대한 관심보호가 높을수록, 자녀에 대한 감독이 높을수록 청소년의 비행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오윤경(2011), 송인정(2008)의 연구에서도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개방적일수록 청소년 비행이 낮아진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조성순(2013)은 부모가 자신을 방임했다고 생각하는 청소년들의 경우 폭력비행, 재산비행, 성비행 등의 청소년 비행정도가 더 높게 나타나 부모 간 또는 부모가 자녀에게 언어적, 신체적 폭력을 경험한 자녀들이 폭력비행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이 역시 가정에서 부모로부터의 지지나 애착정도가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비행을 예방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윤여원(2014)의 연구에서도 청소년 비행의 원인을 가정환경요인과 관련하여 가정 내의 분위기가 좋을수록 부모의 양육태도가 좋고, 부모와 자녀간의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지며, 지위비행, 도피비행, 성비행 등의 청소년 비행이 낮아질 수 있다고 하였다. 이영경(2013)은 그의 연구에서 청소년 비행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부모와의 관계, 가족기능과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가족특성요인에 관한 연구에서 가족탄력성이 청소년의 자기효능감 향상 및 정신건강증진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는 요인으로 가족탄력성이 높을수록 청소년 비행이 낮아지고, 청소년의 자기효능감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신건강요인인 스트레스, 우울, 자살생각 등 심리적, 정서적 비행요인이 감소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경미현(2013)의 연구결과에서도 부모의 양육태도가 좋을수록,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많을수록,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청소년 비행이 낮아지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좋을수록 도피비행이나 재산비행이 낮아지는 등 부모와 자녀와의 의사소통이 청소년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원인임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연구사례에서 보듯이 청소년 비행의 중요한 요인이 대부분 가족특성요인인 것으로 나타나 가정 내에서의 부모-자녀 애착관계, 가족의 지지도, 자기효능감, 자존감 증진 등 가정에서 자녀들의 인성교육을 위한 방안마련이 매우 필요하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제주도내 중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350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표집 방법은 제주시 동부지역과 서부지역, 서귀포시 지역 학교 3개교를 임의 선정하였다. 전체 표집 인원 350명 중 일부 무응답 또는 불성실한 응답으로 연구에 활용할 수 없는 인원 18명을 제외한 나머지 332명에 대해서 연구를 진행하였다. 설문 조사를 통해 회수된 조사 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다음의 표Ⅲ-1 과 같다.

III-1.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n= 332

구분		빈도 (n=332)	퍼센트 (%)	구분	빈도 (n=332)	퍼센트 (%)				
성별	여성	179	53.9	가족수	2명	8	2.4			
	남성	153	46.1		3명	35	10.5			
학력	아버지	초등학교 졸업이하	3		0.9	4명	131	39.5		
		중학교졸업	6		1.8	5명	119	35.8		
		고등학교졸업	116		35.3	6명 이상	37	11.1		
		대학교 졸업 이상	203		60.8	결측값	2	0.6		
		결측값	4		1.2	어머니	아버지	243	26.9	
		어머니	초등학교 졸업이하		0		0	어머니	278	30.7
	중학교졸업		12		3.6		식사 시, 가족 구성원 ^a (복수 응답)	할아버지	8	0.9
	고등학교졸업		135		41.0			할머니	100	11.1
	대학교 졸업 이상		182	54.5	경제적 능력			형제자매	276	30.5
	결측값	3	0.9	아주 못 산다				0	0.0	
경제적 능력	아주 못 산다	0	0.0	못 산다		37		11.1		
	못 산다	37	11.1	보통이다		216		65.1		
	보통이다	216	65.1	잘 산다	71	21.4				
	잘 산다	71	21.4	아주 잘 산다	7	2.1				
	아주 잘 산다	7	2.1	결측값	1	0.3				
	결측값	1	0.3							

2. 연구절차

본 연구에서는 앞에서 밝힌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문헌조사를 통한 이론적 연구와 자기보고식 질문지를 활용한 설문조사의 방법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문헌조사는 밥상머리교육, 학교부적응, 비행 행동과 관련된 선행연구 논문과 국내문헌, 정부·공공기관의 통계자료 등을 포괄적으로 고찰하여 이론적 배경을 구축하였으며, 설문조사는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중학교 1, 2학년 350명을 표집 대상으로 하였다. 제주시 동부지역과 서부지역, 서귀포시 지역으로 나누어 전화

로 미리 연구에 대한 취지를 설명한 후 사전에 협조를 구하였으며, 협조에 응한 제주시 지역 2개 학교와 서귀포시 지역 1개 학교에 대해서 2015년 10월 12일부터 10월 16일까지 5일 간 연구자가 해당 학교를 방문하여 담임교사에게 질문지의 문항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였고, 담임교사가 해당 학급에 들어가서 직접 설문지를 배부하고 학생들에게 질문지 작성요령에 대한 설명을 마친 후 30분-45분에 걸쳐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연구자가 직접 응답한 설문지를 수거하였다.

3. 연구도구

1) 밥상머리교육 척도

본 연구에 사용된 밥상머리교육 진단척도는 김숙경(2014)이 개발한 설문지 중 일반적인 사항과 가족과 식사하는 기간, 횟수, 시간 등에 대한 문항을 인용하였으며, 이정선(2009)의 가족과 함께하는 가족식사의 느낌에 관한 질문 문항을 사용하였다. 밥상머리에절교육의 내용에 관한 문항은 서울대학교학부모정책연구센터(2015)의 ‘학부모용 길라잡이’, 이기영(2011)의 ‘세상을 살리는 밥상머리교육’, 김승일·이기영(2010)의 ‘밥상머리에서 배워요’, 김인희(2004)의 ‘밥상머리교육부터 다시하자’, SBS스페셜 제작팀(2015)의 ‘밥상머리의 작은 기적’ 등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밥상머리에절교육으로 제시되고 있는 내용을 근거로 연구자가 문항을 개발하여 사용하였다.

설문지 구성은 밥상머리교육의 실시여부와 밥상머리교육을 받는 학생을 대상으로 밥상에서 가족과 함께 대화하며 식사한 기간, 주당 식사 횟수, 1회의 식사 시간, 밥상에서 부모님이나 웃어른으로부터 배우는 밥상머리에절교육 내용 및 실시 빈도, 가족과 함께하는 가족식사에 대한 인식정도 등 총 14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1번부터 3번까지의 문항은 가족끼리 식사한 기간과 횟수, 식사시간에 따라 1점에서 5점까지 평정하며 점수가 낮을수록 가족과의 식사기간, 횟수, 시간 등이 적음을 의미한다.

4번부터 9번까지의 문항은 ‘가족과 함께하는 식사 시간은 가족간의 유대를 가깝게 한다’, ‘우리가족은 가족식사 시간이 가족과의 대화시간이다’, ‘가족식사를 통해서 식사에절을 배울 수 있다’ 등 가족과 함께하는 가족식사에 대한 인식정도를 묻는 문항이며, 5점 Likert 방식으로 평정하며 ‘전혀 그렇지 않다’는 1점, ‘그렇지 않다’는 2점, ‘보통이다’ 3점, ‘그렇다’ 4점, ‘매우 그렇다’는 5점으로 점수가 낮을수록 가족과 함께하는 가족식사에 대해서 긍정적이지 못한 생각을 갖고 있다는 의미이다.

10번부터 14번까지의 문항은 ‘어른이 먼저 수저를 들기 전에는 먼저 먹지 않는다’, 식사 전과 후에 ‘잘먹겠습니다, 잘먹었습니다’ 는 고마운 인사를 하도록 한다, ‘밥상에 차려진 음식은 가족들을 배려하면서 함께 나눠먹는다’, ‘자기가 먹은 그릇은 자기가 스스로 치우도록 한다’ 등 밥상머리에서 웃어른으로부터 배우는 밥상머리 예절교육의 내용에 관하여 묻는 문항이며 1점에서 5점까지 평정하며 ‘전혀안함’은 1점, ‘한 학기에 1-2회’는 2점, ‘한달에 1-2회’는 3점, ‘1주일에 1-2회’는 4점, ‘거의 매일’은 5점으로, 점수가 낮을수록 밥상머리에서 예절교육의 실시빈도가 낮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측정 도구의 신뢰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크론바흐 알파계수(Cronbach’s alpha coefficient)를 산출하고 이를 평가하였다. 크론바흐 알파계수(Cronbach’s alpha coefficient)의 기준값을 0.65로 잡고 0.65이상일 때 신뢰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본 연구의 신뢰도 분석 결과 표Ⅲ-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밥상머리교육에 대한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0.815$ 로 모두 기준치인 0.65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어서 측정 항목에 대한 신뢰성이 확보되었다.

표Ⅲ-2 밥상머리교육의 신뢰도

요인명	측정 문항 수	문항번호	Cronbach’s α
밥상머리교육 형태	3	1,2,3	.733
가족식사 인식	6	4,5,6,7,8,9	.872
밥상머리에절교육	5	10,11,12,13,14	.841
전체	14		.815

2) 학교부적응 척도

학교부적응 척도는 박정미(1984)의 중.고등학생의 학교적응 태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제작한 설문지와 김정환(1981)과 문선모(1977)의 척도를 참고하여 이상필(1990)이 제작한 설문지, 전용태(1992)가 학교생활 부적응을 밝혀내기 위하여 사용한 설문지 등을 참고하여 김혜영(2014)이 학교부적응 요인을 4개의 영역으로 나누어 사용한 척도를 활용하였다. 설문지 구성은 교사관계영역 8문항, 교우관계영역 9문항, 학습활동관계영역 9문항, 학교규칙준수 관계영역 7문항 등 총 33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교사관계영역은 선생님에게 인사하기 싫다, 선생님과 대화하기 싫다, 선생님들이 마음에 안 들면 반항하고 따진다, 어려운 일이 있어도 선생님과 상담하지 않는다 등이 해당되며, 교우관계영역은 친구들과 어울리기 싫다, 친구들이 좋은 물건을 가지고 있으면 뺏고 싶다, 나의 의견을 무시하는 친구는 실컷 때려주고 싶다, 친구가 공부를 하면 방해한다 등의 내용이 해당된다. 학습활동관계영역은 수업시작 벨이 울리면 교실에 들어가기 싫다, 시험만 생각하면 머리가 아프다, 수업시간에 잠을 자주 잔다, 수업시간에 만화책을 본다 등의 내용이며, 학교규칙준수관계영역은 나는 담배를 피운다, 학교행사에 참여하기 싫다, 지각이나 결석을 자주 한다, 학교를 그만두고 싶다, 학교에서 잘못으로 봉사명령(벌, 징계처분 등)을 받은 적이 있다 등의 내용이 해당된다. 척도는 5점 Rikert 척도로 각 문항에 따라 ‘전혀그렇지않다’는 1점, ‘그렇지않다’는 2점, ‘보통이다’는 3점, ‘그렇다’는 4점, ‘항상 그렇다’는 5점으로 평정하며 전체 문항의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하였으며, 점수가 낮을수록 학교생활 부적응 정도가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학교부적응 변인에 대한 신뢰도 분석 결과 표Ⅲ-3과 같이 교사관계 영역의 Cronbach's $\alpha=0.888$, 교우관계 영역의 Cronbach's $\alpha=0.820$, 학습활동관계 영역의 Cronbach's $\alpha=0.892$, 학교규칙준수관계 영역의 Cronbach's $\alpha=0.811$ 로 모두 기준치인 0.65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어서 측정 항목에 대한 신뢰성이 확보되었다.

표Ⅲ-3 학교부적응의 신뢰도

요인명	측정 문항수	문항번호	Cronbach's α
교사관계 영역	8	1,2,3,4,5,6,7,8	.888
교우관계 영역	9	9,10,11,12,13,14,15,16,17	.820
학습활동관계 영역	9	18,19,20,21,22,23,24,25,26	.892
학교규칙준수 관계 영역	7	27,28,29,30,31,32,33	.811
전체	33		.853

3) 청소년 비행 척도

청소년 비행에 관한 진단척도는 비행유형을 경비행과 중비행으로 구분하여 개발한 전영실(2002)의 척도와 정귀화(2001)가 사용한 척도를 함께 구성하여 사용한 경미현(2013)의 척도를 활용하였으며, 설문지 구성은 도피비행 6문항, 폭력비행 6문항, 재산비행 6문항, 성비행 6문항 등 4개 하위유형 총 24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도피비행은 분드,가스흡입, 환각제 이용, 가출, 무단결석 등과 같이 위험한 것을 접하는 것을 말하며, 폭력비행은 패싸움, 협박, 공공기물파손, 폭행 등과 같이 신체적인 피해를 입히는 나쁜 행동을 말한다. 재산비행은 물건 훔치기, 돈 훔치기, 준비물이나 먹을 것을 억지로 빼앗기 등과 같이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 피해를 입히는 행동을 뜻하며, 성비행은 성관계, 티켓다방이나 불법안마시술소 등의 퇴폐업소 출입, 음란도서, 음란비디오, 음란 인터넷 사이트 등을 이용하는 등의 부적절한 행동을 뜻한다. 척도는 Rikert 5점 척도로 각 문항에 따라 ‘전혀없다’는 1점, ‘없다’는 2점, ‘보통이다’는 3점, ‘많다’는 4점, ‘매우많다’는 5점으로 평정하며 전체 문항의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하였고 점수가 낮을수록 청소년 비행정도가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신뢰도 분석 결과 표Ⅲ-4와 같이 도피비행의 Cronbach's α=0.782, 폭력비행의 Cronbach's α=0.805, 재산비행의 Cronbach's α=0.692, 성비행의 Cronbach's α=0.696으로 모두 기준치인 0.65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어서 내적 일관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어 측정 항목에 대한 신뢰성이 확보되었다.

표Ⅲ-4 청소년 비행의 신뢰도

요인명	측정 항목수	문항번호	Cronbach's α
도피비행	6	1,2,3,4,5,6	.782
폭력비행	6	7,8,9,10,11,12	.805
재산비행	6	13,14,15,16,17,18	.692
성비행	6	19,20,21,22,23,24	.696
전체	24		.744

4. 자료처리 및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20.0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첫째,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밥상머리교육의 실시 여부, 가족과 함께하는 가족식사에 대한 인식정도, 밥상머리에서의 예절교육 실시여부를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밥상머리교육과 학교부적응 및 비행 행동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밥상머리교육의 실시여부에 따른 학교부적응 및 비행 행동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t -검증 및 일원분산분석(ANOVA)을 실시하였다. 밥상머리교육을 받는 학생의 경우 밥상머리에서 가족과 함께 대화하며 식사한 기간과 식사횟수, 식사 시간에 따른 학교부적응 및 비행 행동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ANOVA 분석과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넷째, 가족과 함께하는 가족식사에 대하여 긍정적인 인식(느낌)에 대한 고/저 집단을 구분한 후 고/저 집단에 따른 학교부적응 및 비행 행동의 차이분석을 위하여 t -검증을 실시하였다.

다섯째, 밥상머리예절교육의 빈도에 따라 점수화하여 고/저 집단을 구분한 후, 밥상머리 예절교육(5개) 고/저 집단에 따른 학교부적응 및 비행 행동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t -검증을 실시하였다.

IV. 연구 결과 및 해석

1. 밥상머리교육, 학교부적응, 청소년비행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본 연구에서는 측정 변수들 간의 관련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변수 간 공분산 계산에 의해 가장 폭넓게 사용되는 Pearson 상관계수를 사용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밥상머리교육, 학교부적응, 청소년 비행 변수의 전체에 대해서 상관분석을 실시한 각 변수간의 상관관계는 표IV-1과 같이 밥상머리교육(전체), 학교부적응(전체), 청소년비행(전체) 간에는 유의미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밥상머리교육(전체)은 학교부적응(전체)에 부적(-)상관($r=-.384, p<.001$)을 보이고 있으며, 청소년비행(전체)에도 부적(-)상관($r=-.426, p<.05$)을 보이고 있다. 또한 학교부적응(전체)은 청소년비행(전체)과 정적(+상관($r=.735, p<.001$)을 보이고 있다.

표IV-1 밥상머리교육(전체)과 학교부적응(전체), 청소년비행(전체) 상관분석

	밥상머리교육 전체	학교부적응 전체	청소년비행 전체
밥상머리교육 전체	1		
학교부적응 전체	-.384***	1	
청소년비행 전체	-.426*	.735***	1

*** $p<.001$, * $p<.05$

또한 각 변인들 간의 하위요인에 대한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표IV-2와 같이 나타났다. 먼저 밥상머리교육 14문항, 학교부적응의 하위요인인 교사관계, 교우관계, 학습활동관계, 학교규칙준수관계, 청소년 비행의 하위요인인 도피비행, 폭력비행, 재산비행, 성비행의 상관분석을 실시한 각 변수간의 상관관계를 보면, 밥상머리교육 14문항, 학교부적응의 4가지 하위요인, 청소년 비행의 4가지 하위요인 간에는 유의미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2 밥상머리교육, 학교부적응, 청소년 비행 행동 간의 상관관계

	1-1	1-2	1-3	1-4	1-5	1-6	1-7	1-8	1-9	1-10	1-11	1-12	1-13	1-14	교사 관계	교우 관계	학습 활동	학교 규칙	도피 비행	폭력 비행	재산 비행	성 비행
1-1	1																					
1-2	.247***	1																				
1-3	.058	.097	1																			
1-4	.245***	.304***	.154**	1																		
1-5	.149***	.396***	.400***	.630***	1																	
1-6	.188***	.321***	.118*	.437***	.395***	1																
1-7	.249***	.363***	.126**	.566***	.574***	.583***	1															
1-8	.123*	.383***	.209***	.472***	.602***	.440***	.570***	1														
1-9	.109*	.416***	.233***	.488***	.591***	.446***	.635***	.546***	1													
1-10	.055	.319***	-.056	.323***	.240***	.333***	.470***	.273***	.521***	1												
1-11	.162**	.253***	-.037	.325***	.227***	.335***	.372***	.267***	.438***	.577***	1											
1-12	.192***	.288***	.035	.351***	.305***	.325***	.385***	.257***	.462***	.595***	.708***	1										
1-13	.110*	.344***	.093	.287***	.351***	.258***	.340***	.316***	.458***	.474***	.475***	.575***	1									
1-14	-.049	.219***	.085	.226***	.344***	.190***	.227***	.321***	.418***	.344***	.360***	.421***	.654***	1								
교사 관계	-.210***	-.218***	-.102	-.209***	-.090	-.313***	-.308***	-.172***	-.225***	-.301***	-.373***	-.252***	-.105	-.031	1							
교우 관계	-.112*	-.005	-.110*	-.036	.094	-.122*	-.097	.015	.008	-.173***	-.114*	-.184***	.091	.099	.540*	1						
학습 활동	-.105	-.143**	-.132**	-.217***	-.058	-.376***	-.285***	-.139**	-.196***	-.354***	-.351***	-.324***	-.047	.017	.618*	.523*	1					
학교 규칙	-.200***	-.165**	-.035	-.076	-.101	-.181***	-.160**	-.161**	-.180***	-.149*	-.317***	-.227***	-.039	.097	.501*	.463*	.548*	1				
도피 비행	-.152**	-.063	.042	-.046	-.031	-.235***	-.167***	-.048	-.122*	-.064	-.159**	-.056	-.121*	-.140*	.329*	.392*	.394*	.678*	1			
폭력 비행	-.171***	.000	.041	-.029	.046	-.195***	-.119*	.038	-.042	-.167***	-.144**	-.128**	.015	.017	.531*	.623*	.553*	.530*	.471*	1		
재산 비행	.003	.023	.039	-.061	.013	-.162**	-.163**	.093	-.017	-.117*	.075	-.085	-.007	-.017	.211*	.274*	.256*	.298*	.208*	.397*	1	
성 비행	-.119*	-.220***	.017	-.152**	-.142**	-.104	-.211***	-.215***	-.226***	-.174***	-.190***	-.081	-.087	-.084	.303*	.304*	.312*	.310*	.290*	.414*	.166*	1

***p<.001, **p<.01, *p<.05

2. 밥상머리교육 실시여부에 따른 학교부적응 및 비행 행동의 차이

1) 밥상머리교육 실시여부

조사대상자의 밥상머리교육 실시 여부를 분석한 결과 표IV-3과 같이 밥상머리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가 74.1%(246명)였고, 밥상머리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경우가 25.9%(86명)로 나타나 상당수의 가정에서 밥상머리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IV-3 밥상머리교육 실시 유무

구분	빈도(n=332)	퍼센트(%)
밥상머리 교육 실시	246	74.1
밥상머리 교육 미실시	86	25.9

또한,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밥상머리교육의 실시여부를 알아보기 위하여 교차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분석결과는 다음의 표 IV-4와 같다.

표IV-4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밥상머리교육 실시 여부
n=332

구분		밥상머리교육 실시 (n=246)	밥상머리교육 미실시 (n=86)	전체 (n=332)	
가족 수	2명	7(2.1%)	1(0.3%)	8(2.4%)	
	3명	23(7.0%)	12(3.6%)	35(10.6%)	
	4명	101(30.3%)	31(9.4%)	132(39.7%)	
	5명	92(27.9%)	27(8.2%)	119(36.1%)	
	6명 이상	23(7.0%)	14(4.2%)	37(11.2%)	
	학 력	초등학교 졸업 이하	3(0.9%)	0(0.0%)	3(0.9%)
중학교 졸업		5(1.5%)	1(0.3%)	6(1.8%)	
고등학교 졸업		87(25.3%)	33(10.1%)	120(35.4%)	
대학교 졸업 이상		151(46.0%)	52(15.9%)	203(61.9%)	
어 버 지		초등학교 졸업 이하	0(0.0%)	0(0.0%)	0(0.0%)
		중학교 졸업	8(2.4%)	4(1.2%)	12(3.6%)
		고등학교 졸업	100(29.5%)	38(11.6%)	138(41.1%)
		대학교 졸업 이상	138(41.9%)	44(13.4%)	182(55.3%)
어 머 니	못 산다.	30(9.1%)	7(2.1%)	37(11.2%)	
	보통이다.	157(47.4%)	59(17.8%)	216(65.3%)	
	잘 산다.	53(15.7%)	19(5.7%)	72(21.4%)	
	아주 잘 산다.	6(1.8%)	1(0.3%)	7(2.1%)	
경제적 능력	아버지	191(57.9%)	52(15.8%)	243(73.6%)	
	어머니	209(63.3%)	69(20.9%)	278(84.2%)	
	할아버지	4(1.2%)	4(1.2%)	8(2.4%)	
	할머니	75(22.7%)	25(7.6%)	100(30.3%)	
	형제자매	208(63.0%)	68(20.6%)	276(83.6%)	

가족 수에 따른 밥상머리교육의 실시 여부를 살펴보면, 가족 수가 2명인 경우, 밥상머리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응답자는 2.1%(7명), 밥상머리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응답자는 0.3%(1명)으로 나타났다. 가족 수가 3명인 경우, 밥상머리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응답자는 7.0%(23명), 밥상머리교육이 이루어지지 않

고 있는 응답자는 3.6%(12명)으로 나타났다. 가족 수가 4명인 경우, 밥상머리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응답자는 30.3%(101명), 밥상머리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응답자는 9.4%(31명)으로 나타났다. 가족 수가 5명인 경우, 밥상머리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응답자는 27.9%(92명), 밥상머리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응답자는 8.2%(27명)으로 나타났다. 가족 수가 6명 이상인 경우, 밥상머리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응답자는 7.0%(23명), 밥상머리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응답자는 4.2%(14명)으로 나타났다.

부모님의 학력에 따른 밥상머리교육의 실시 여부를 살펴보면, 아버지 학력이 초등학교 졸업 이하인 경우, 밥상머리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응답자는 0.9%(3명), 밥상머리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응답자는 0.0%(0명)으로 나타났다. 아버지 학력이 중학교 졸업인 경우, 밥상머리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응답자는 1.5%(5명), 밥상머리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응답자는 0.3%(1명)으로 나타났다. 아버지 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인 경우, 밥상머리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응답자는 25.3%(87명), 밥상머리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응답자는 10.1%(33명)으로 나타났다. 아버지 학력이 대학교 졸업 이상인 경우, 밥상머리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응답자는 46.0%(151명), 밥상머리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응답자는 15.9%(52명)으로 나타났다. 어머니 학력이 초등학교 졸업 이하인 경우, 밥상머리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응답자는 0.0%(0명), 밥상머리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응답자는 0.0%(0명)으로 나타났다. 어머니 학력이 중학교 졸업인 경우, 밥상머리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응답자는 2.4%(8명), 밥상머리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응답자는 1.2%(4명)으로 나타났다. 어머니 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인 경우, 밥상머리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응답자는 29.5%(100명), 밥상머리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응답자는 11.6%(38명)으로 나타났다. 어머니 학력이 대학교 졸업 이상인 경우, 밥상머리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응답자는 41.9%(138명), 밥상머리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응답자는 13.4%(44명)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가정의 경제적 능력에 따른 밥상머리교육의 실시 여부를 살펴보면, 경제적 능력이 '못 산다'라고 여기는 응답자는 밥상머리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가 9.1%(30명), 밥상머리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경우가 2.1%(7명)로 나타났다. 경제적 능력이 '보통이다'라고 여기는 응답자는 밥상머리교육이 이루어

지고 있는 경우가 47.4%(157명), 밥상머리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경우가 17.8%(59명)로 나타났다. 경제적 능력이 ‘잘 산다’라고 여기는 응답자는 밥상머리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가 15.7%(53명), 밥상머리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경우가 5.7%(19명)로 나타났다. 경제적 능력이 ‘아주 잘 산다’라고 여기는 응답자는 밥상머리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가 1.8%(6명), 밥상머리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경우가 0.3%(1명)로 나타났다.

응답자가 식사할 때 함께 식사하는 구성원의 복수응답에 따른 밥상머리교육의 실시 여부를 살펴보면, 아버지와 함께 식사하는 경우 밥상머리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응답자는 57.9%(191명), 밥상머리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응답자는 15.8%(52명)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와 함께 식사하는 경우에는 밥상머리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응답자는 63.3%(209명), 밥상머리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응답자는 20.9%(69명)으로 나타났다. 할아버지와 함께 식사하는 경우에는 밥상머리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응답자는 1.2%(4명), 밥상머리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응답자는 1.2%(4명)으로 나타났다. 할머니와 함께 식사하는 경우에 밥상머리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응답자는 22.7%(75명), 밥상머리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응답자는 7.6%(25명)으로 나타났다. 형제자매와 함께 식사를 하는 경우에는 밥상머리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응답자가 63.0%(208명), 밥상머리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응답자는 20.6%(68명)으로 나타났다.

2) 밥상머리교육 실시여부에 따른 학교부적응의 차이

밥상머리교육 실시 여부에 따라 학교부적응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t*-test를 실시한 분석결과는 표IV-5 와 같이 밥상머리교육 실시 여부에 따라 학교부적응 행동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학교부적응의 총점($t=-12.268, p<.001$)의 차이는 유의하였으며, 평균값은 밥상머리교육을 받지 않는 응답자($M=2.07$)가 밥상머리교육을 받는 응답자($M=1.39$)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밥상머리교육을 받지 않는 학생이 밥상머리교육을 받는 학생에 비해서 학교부적응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IV-5 밥상머리교육 실시 여부에 따른 학교부적응(전체) 차이 n=332

구분	밥상머리교육 실시 (n=246)	밥상머리교육 미실시 (n=86)	t
학교부적응	1.39	2.07	-12.268***

*** $p<.001$

또한, 밥상머리교육 실시 여부에 따라 학교부적응의 4가지 하위요인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t -test를 실시한 결과는 표IV-6 와 같이 밥상머리교육 실시 여부에 따라 교사관계 영역($t=-8.992$, $p<.001$), 교우관계 영역($t=-8.235$, $p<.001$), 학습활동관계 영역($t=-11.226$, $p<.001$), 학교규칙준수관계 영역($t=-6.607$, $p<.001$)의 4개의 하위요인 모두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는 밥상머리교육을 받는 학생이 밥상머리교육을 받지 않는 학생에 비해서 학교부적응 4개의 하위요인 모두에서 학교부적응 수준이 낮음을 의미한다.

표IV-6 밥상머리교육 실시 여부에 따른 학교부적응(요인별) 차이 n=332

구분	밥상머리교육 실시 (n=246)	밥상머리교육 미실시 (n=86)	t
교사관계 영역	1.36	2.01	-8.992***
교우관계 영역	1.15	1.67	-8.235***
학습활동관계 영역	1.94	3.02	-11.226***
학교규칙준수관계 영역	1.11	1.60	-6.607***

*** $p<.001$

3) 밥상머리교육 실시 여부에 따른 청소년비행의 차이

밥상머리교육 실시 여부에 따라 청소년비행에 차이가 있는지에 대하여 t -test를 실시한 결과는 표IV- 7과 같이 청소년비행의 총점($t=-13.439$, $p<.001$)의 차이는 유의하였으며, 평균값은 밥상머리교육을 받지 않고 있는 응답자($M=1.61$)가 밥상머리교육을 받고 있는 응답자($M=1.07$)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밥상머리교육을 받지 않는 학생이 밥상머리교육을 받는 학생에 비해서 청소년 비행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IV-7 밥상머리교육 실시 여부에 따른 청소년비행(전체) 차이 n=332

구분	밥상머리교육 실시 (n=246)	밥상머리교육 미실시 (n=86)	t
청소년비행	1.07	1.61	-13.439***

*** $p < .001$

또한, 청소년비행의 4가지 하위요인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t -test를 실시한 결과는 표IV-8 과 같이 밥상머리교육 실시 여부에 따라 도피비행($t = -7.271, p < .001$), 폭력비행($t = -12.779, p < .001$), 재산비행($t = -4.232, p < .001$), 성비행($t = -7.019, p < .001$) 모두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는 밥상머리교육을 받는 학생이 받지 않는 학생에 비해서 청소년비행의 4가지 하위요인 모두에서 비행 수준이 낮음을 의미한다.

표IV-8 밥상머리교육 실시 여부에 따른 청소년비행(요인별) 차이 n=332

구분	밥상머리교육 실시 (n=246)	밥상머리교육 미실시 (n=86)	t
도피비행	1.10	1.83	-7.271***
폭력비행	1.06	1.80	-12.779***
재산비행	1.08	1.32	-4.232***
성비행	1.05	1.48	-7.019***

*** $p < .001$

3. 가족과 함께 대화하며 식사한 기간, 식사횟수, 식사시간에 따른 학교부적응 및 비행 행동의 차이

1) 가족과 함께 대화하며 식사한 기간, 식사 횟수, 식사 시간에 대한 빈도

조사 대상자들 중 밥상머리교육을 실시하는 응답자들의 경우 가족과 함께 대화하며 식사한 기간, 식사 횟수 및 식사 시간에 대한 빈도분석 결과는 다음의 표IV-9 와 같다. 응답자들이 밥상(식탁)에서 가족과 함께 대화하며 식사한 기간은

‘7년 이상’이 76.5%(188명)로 가장 많았고, ‘5년 이상-7년 미만’이 13.5%(33명), ‘1년 이상-3년 미만’이 5.8%(14명), ‘3년 이상-5년 미만’이 3.0%(8명), ‘1년 미만’이 1.2%(3명)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이 밥상(식탁)에서 가족과 함께 식사하는 횟수는 1주일에 평균 ‘주 5회 이상’이 50.8%(125명)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주 3회’가 19.1%(47명), ‘주 4회’가 17.5%(43명), ‘주 2회’가 9.8%(24명), ‘주 1회’가 2.8%(7명)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이 가족과 함께 식사하는 시간은 1회 평균 ‘30분 미만’이 54.9%(135명)으로 가장 높은 응답율을 보였고, 그 다음으로 ‘30분 이상-1시간 미만’이 38.6%(95명), ‘1시간 이상-1시간 30분 미만’이 5.7%(14명), ‘1시간 30분 이상-2시간 미만’이 0.4%(1명), ‘2시간 이상’이 0.4%(1명)으로 조사되었다.

표IV-9 밥상머리교육의 기간 및 횟수, 식사시간 n=246

구분		빈도(n=246)	퍼센트(%)
가족과 대화하며 식사한 기간	1년 미만	3	1.2
	1년 이상-3년 미만	14	5.8
	3년 이상-5년 미만	8	3.0
	5년 이상-7년 미만	33	13.5
	7년 이상	188	76.5
	계	246	100
1주일 식사 횟수	주 1회	7	2.8
	주 2회	24	9.8
	주 3회	47	19.1
	주 4회	43	17.5
	주 5회 이상	125	50.8
	계	246	100
1회 평균 식사 시간	30분 미만	135	54.9
	30분 이상-1시간 미만	95	38.6
	1시간 이상-1시간 30분 미만	14	5.7
	1시간 30분 이상-2시간 미만	1	0.4
	2시간 이상	1	0.4
	계	246	100

2) 가족과 대화하며 식사한 기간, 식사횟수, 식사시간에 따른 학교부적응의 차이

(1) 가족과 대화하며 식사한 기간에 따른 학교부적응 차이(전체)

밥상머리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학생의 가족과 대화하며 식사한 기간에 따라 학교부적응 요인 총점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일원분산분석(ANOVA)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의 표IV-10과 같다. 사후분석으로는 Scheffé 검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밥상머리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학생의 가족과 대화하며 식사한 기간에 따라 학교부적응 요인 총점은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2.488$, $p<.01$). 사후분석 결과 학교부적응 전체의 경우는 ‘1년 미만’인 집단이 ‘7년 이상’의 집단에 비하여 학교 규칙을 잘 지키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IV-10 가족과 대화하며 식사한 기간에 따른 학교부적응(전체) 차이

							n=246
종속변수	1년 미만 (n=3) a	1년이상-3 년미만 (n=14) b	3년이상- 5년미만 (n=8) c	5년이상- 7년미만 (n=33) d	7년 이상 (n=188) e	F	Scheffé
학교부적응 (전체)	4.51	4.38	4.46	4.56	4.24	2.488**	e<a

** $p<.01$

(2) 가족과 대화하며 식사한 기간에 따른 학교부적응 차이(요인별)

밥상머리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학생이 가족과 대화하며 식사한 기간에 따라 학교부적응 요인인 교사관계영역, 교우관계영역, 학습활동관계영역, 학교규칙준수관계영역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일원분산분석(ANOVA)을 실시한 결과는 표IV-11 과 같이 나타났으며, 사후분석으로는 Scheffé 검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밥상머리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학생의 가족과 대화하며 식사한 기간에 따라 학교부적응의 4가지 요인 중 교사관계영역($F=2.933$, $p<.01$)과 학교규칙준수관계영역($F=2.722$, $p<.01$)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후분석 결과에서는 교사관계영역의 경우는 ‘1년 미만’과 ‘1년 이상-3년 미만’인 집단이 ‘7년

이상'의 집단에 비하여 학교 규칙을 잘 지키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학교규칙 준수관계영역의 경우는 가족과 대화하며 식사한 기간이 '1년 이상-3년 미만'인 집단이 '7년 이상'인 집단에 비하여 학교규칙을 잘 지키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IV-11 가족과 대화하며 식사한 기간에 따른 학교부적응 차이(요인별)

n=246							
종속변수	1년 미만 (n=3) a	1년이상- 3년미만 (n=14) b	3년이상- 5년미만 (n=8) c	5년이상- 7년미만 (n=33) d	7년 이상 (n=188) e	F	Scheffé
교사관계 영역	1.72	1.63	1.46	1.46	1.31	2.933**	e<a,b
교우관계 영역	1.33	1.21	1.28	1.19	1.14	.920	-
학습활동 관계영역	1.57	2.32	2.25	1.98	1.90	1.515	-
학교규칙준수 관계영역	1.33	1.31	1.17	1.13	1.09	2.722**	e<b

**p<.01

(3) 가족과 함께하는 식사 횟수에 따른 학교부적응의 차이(전체)

밥상머리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학생의 가족과의 식사 횟수에 따라 학교부적응 요인 총점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일원분산분석(ANOVA)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의 표IV-12 와 같다. 분석결과, 밥상머리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학생의 가족과의 식사 횟수에 따라 학교부적응 요인 총점은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으며($F=4.022$, $p<.001$), 사후분석 결과 '주 1회'인 집단은 '주 4회'인 집단보다 학교부적응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IV-12 가족과 함께하는 식사 횟수에 따른 학교부적응(전체) 차이

n=246							
종속변수	주1회 (n=7) a	주2회 (n=24) b	주3회 (n=47) c	주4회 (n=43) d	주5회 이상 (n=125) e	F	Scheffé
학교부적응 (전체)	1.74	1.50	1.45	1.28	1.37	4.022***	d<a

*** $p<.001$

(4) 가족과 함께하는 식사 횟수에 따른 학교부적응의 차이(요인별)

밥상머리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학생의 가족과의 식사 횟수에 따라 학교부적응 요인인 교사관계영역, 교우관계영역, 학습활동관계영역, 학교규칙준수관계영역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일원분산분석(ANOVA)을 실시한 결과는 표IV-13과 같이 밥상머리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학생의 가족식사 횟수에 따라 학교부적응의 4가지 요인 중, 교사관계영역, 학습활동관계영역, 학교규칙준수관계영역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밥상머리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학생의 가족과 함께 하는 식사 횟수에 따라 교사관계영역은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F=6.424, p<.001$), 사후분석 결과 밥상머리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학생의 식사 횟수가 ‘주 1회’, ‘주 2회’, ‘주 3회’인 집단은 ‘주 4회’인 집단보다 교사관계에서 부적응하는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주 1회’인 집단은 ‘주 5회 이상’인 집단보다 교사관계영역에서 학교부적응 행동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식사횟수에 따라 학습활동관계영역에서도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F=2.567, p<.01$), 사후분석 결과 밥상머리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학생의 식사 횟수가 ‘주 1회’, ‘주 2회’, ‘주 3회’인 집단은 ‘주 4회’인 집단보다 학습활동 관계에서 부적응하는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주 1회’인 집단은 ‘주 5회 이상’인 집단보다 학습활동 관계영역에서 학교부적응 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규칙준수 관계영역에서도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F=2.346, p<.05$), 사후분석 결과 가족과의 식사 횟수가 ‘주 1회’인 집단은 ‘주 5회 이상’인 집단보다 학교규칙준수 관계영역에서 학교부적응 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IV-13 가족과 함께하는 식사 횟수에 따른 학교부적응 차이(요인별)

							n=246
종속변수	주1회 (n=7) a	주2회 (n=24) b	주3회 (n=47) c	주4회 (n=43) d	주5회 이상 (n=125) e	F	Scheffé
교사관계 영역	1.90	1.56	1.43	1.17	1.32	6.424***	d<a,b,c e<a
교우관계 영역	1.11	1.18	1.15	1.12	1.16	.212	-
학습활동 관계영역	2.61	2.06	2.07	1.76	1.90	2.567**	d<a,b,c e<a
학교규칙준수 관계영역	1.31	1.19	1.16	1.06	1.09	2.346*	e<a

*** $p<.001$, ** $p<.01$, * $p<.05$,

(5) 가족과 함께하는 식사 시간에 따른 학교부적응의 차이(전체)

밥상머리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학생이 가족과 함께하는 1회의 식사 시간에 따라 학교부적응 요인 총점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일원분산분석(ANOVA)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의 표IV-14와 같이 가족과 함께하는 1회의 식사 시간에 따라 학교부적응 요인 총점은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F=4.409$, $p<.01$), 사후분석 결과 가족과 함께하는 1회의 식사 시간이 ‘30분 이상-1시간 미만’인 집단은 가족과 함께하는 1회의 식사 시간이 ‘30분 미만’인 집단보다 학교부적응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IV-14 가족과 함께하는 식사 시간에 따른 학교부적응(전체) 차이

						n=246
종속변수	30분 미만 (n=135) a	30분 이상 -1시간 미만 (n=95) b	1시간 이상 (n=16) c	F	Scheffé	
학교부적응 (전체)	1.33	1.47	1.39	4.409**	a<b	

** $p<.01$

(6) 가족과 함께하는 식사 시간에 따른 학교부적응의 차이(요인별)

밥상머리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학생이 가족과 함께 식사하는 1회의 식사 시간에 따라 학교부적응과 비행 요인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일원분산분석(ANOVA)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1시간 30분 이상-2시간 미만’과 ‘2시간 이상’의 응답자가 1명으로 나타나 분석결과가 의미가 없으므로 코딩변경을 적용하여 전체 집단을 ‘30분 미만’, ‘30분 이상-1시간 미만’, ‘1시간 이상’ 집단으로 분류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밥상머리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학생이 가족과 함께하는 식사 시간에 따라 학교부적응 요인인 교사관계영역, 교우관계영역, 학습활동관계영역, 학교규칙준수관계영역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일원분산분석(ANOVA)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IV-15와 같이 학교부적응의 4가지 하위요인 중 학습활동관계영역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F=6.994, p<.001$), 사후분석을 실시한 결과 밥상머리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학생이 가족과 함께하는 1회의 식사 시간이 ‘30분 이상-1시간 미만’인 집단은 가족과 함께하는 1회의 식사 시간이 ‘30분 미만’인 집단보다 학습활동영역의 부적응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IV-15 가족과 함께하는 식사시간에 따른 학교부적응의 차이(요인별)

n=246					
종속변수	30분 미만 (n=135) a	30분 이상 -1시간 미만 (n=95) b	1시간 이상 (n=16) c	F	Scheffé
교사관계 영역	1.31	1.42	1.42	1.756	-
교우관계 영역	1.26	1.79	1.24	1.387	-
학습활동 관계영역	1.79	2.17	1.86	6.994***	a<b
학교규칙준수 관계영역	1.11	1.13	1.03	.886	-

*** $p<.001$

3) 가족과 대화하며 식사한 기간, 식사횟수, 식사시간에 따른 청소년 비행의 차이

(1) 가족과 대화하며 식사한 기간에 따른 청소년 비행의 차이(전체)

밥상머리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학생이 가족과 대화하며 식사한 기간에 따라 청소년비행 요인 총점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일원분산분석(ANOVA)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의 표IV-16과 같다. 분석결과, 밥상머리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학생의 가족과 대화하며 식사한 기간에 따라 청소년비행 요인 총점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F=2.219, p<.05$), 사후분석 결과 밥상머리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학생의 가족과 대화하며 식사한 기간이 '1년 이상-3년 미만'인 집단은 '7년 이상'인 집단보다 청소년 비행이 더 높게 나타났다.

표IV-16 가족과 대화하며 식사한 기간에 따른 청소년비행(전체) 차이

종속변수	n=246					F	Scheffé
	1년 미만 (n=3) a	1년이상-3년미만 (n=14) b	3년이상-5년미만 (n=8) c	5년이상-7년미만 (n=33) d	7년 이상 (n=188) e		
청소년비행 (전체)	1.08	1.36	1.10	1.09	1.06	2.219*	e<b

* $p<.05$

(2) 가족과 대화하며 식사한 기간에 따른 청소년 비행의 차이(요인별)

밥상머리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학생에 대하여 가족과 대화하며 식사한 기간에 따라 청소년비행 요인인 도피비행, 폭력비행, 재산비행, 성비행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일원분산분석(ANOVA)을 실시한 결과는 표IV-17과 같이 청소년비행의 4가지 요인 중 도피비행은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F=2.072, p<.01$) 사후분석 결과 밥상머리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학생이 가족과 대화하며 식사한 기간이 '1년 이상-3년 미만'인 집단은 '7년 이상'인 집단보다 도피비행 수준이 더 높게 나타났다. 폭력비행도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F=2.588, p<.01$), 사후분석 결과 밥상머리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학생의 가족과 대화하며 식

사한 기간이 '1년 이상-3년 미만'인 집단은 '7년 이상'인 집단보다 폭력비행 수준이 더 높게 나타났다.

표IV-17 가족과 대화하며 식사한 기간에 따른 청소년 비행 차이(요인별)

n=246							
종속변수	1년 미만 (n=3) a	1년이상-3 년미만 (n=14) b	3년이상- 5년미만 (n=8) c	5년이상- 7년미만 (n=33) d	7년 이상 (n=188) e	F	Scheffé
도피비행	1.22	1.29	1.08	1.10	1.09	2.072**	e<b
폭력비행	1.08	1.18	1.13	1.05	1.05	2.588**	e<b
재산비행	1.00	1.00	1.13	1.18	1.07	1.756	-
성비행	1.00	1.17	1.08	1.04	1.04	1.884	-

**p<.01

(3) 가족과 함께하는 식사 횟수에 따른 비행 행동의 차이(전체)

밥상머리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학생이 가족과 함께하는 식사 횟수에 따라 청소년비행 요인 총점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일원분산분석(ANOVA)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의 표IV-18과 같다. 분석결과, 가족과 함께 식사하는 횟수에 따라 청소년비행 요인 전체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2.313<.01$). 사후분석 결과에서는 청소년비행에서 밥상머리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학생의 식사 횟수가 '주 1회'인 집단은 '주 5회 이상'인 집단보다 청소년비행 수준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IV-18 가족과 함께하는 식사 횟수에 따른 비행 행동(전체) 차이

n=246							
종속변수	주1회 (n=7) a	주2회 (n=24) b	주3회 (n=47) c	주4회 (n=43) d	주5회 이상 (n=125) e	F	Scheffé
청소년비행 (전체)	1.24	1.09	1.08	1.05	1.07	2.313**	e<a

**p<.01

(4) 가족과 함께하는 식사 횟수에 따른 비행 행동의 차이(요인별)

밥상머리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학생의 가족과 함께하는 식사 횟수에 따라 청소년비행 요인인 도피비행, 폭력비행, 재산비행, 성비행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일원분산분석(ANOVA)을 실시한 결과는 표IV-19 와 같다. 밥상머리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학생의 가족과의 식사 횟수에 따라 청소년비행의 4가지 요인 중, 도피비행($F=2.591, p<.01$)과 성비행($F=3.627, p<.001$)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후분석 결과에서는 도피비행에서 가족과의 식사 횟수가 ‘주 1회’인 집단은 ‘주 4회’인 집단보다 도피비행 수준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성비행에서도 밥상머리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학생의 가족과의 식사 횟수가 ‘주 2회’인 집단은 ‘주 5회 이상’인 집단보다 성비행 수준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IV-19 가족과 함께하는 식사 횟수에 따른 비행 행동의 차이(요인별)

							n=246	
종속변수	주1회 (n=7) a	주2회 (n=24) b	주3회 (n=47) c	주4회 (n=43) d	주5회 이상 (n=125) e	F	Scheffé	
도피비행	1.33	1.10	1.11	1.07	1.10	2.591**	d<a	
폭력비행	1.14	1.05	1.04	1.05	1.06	.691	-	
재산비행	1.00	1.06	1.11	1.03	1.09	.730	-	
성비행	1.10	1.15	1.08	1.04	1.02	3.627***	e<b	

*** $p<.001$, ** $p<.01$

(5) 가족과 함께하는 식사 시간에 따른 청소년비행의 차이(전체)

밥상머리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학생의 가족과 함께하는 식사시간에 따라 청소년비행 요인 총점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일원분산분석(ANOVA)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의 표IV-20과 같이 가족과 함께하는 식사 시간에 따라 청소년비행 요인 총점은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IV-20 가족과 함께하는 식사 시간에 따른 청소년비행(전체) 차이

n=246					
종속변수	30분 미만 (n=135) a	30분 이상 -1시간 미만 (n=95) b	1시간 이상 (n=16) c	F	Scheffé
청소년비행 (전체)	1.06	1.08	1.08	.618	-

(6) 가족과 함께하는 식사 시간에 따른 청소년비행의 차이(요인별)

밥상머리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학생의 가족과 함께하는 식사 시간에 따라 청소년비행 요인인 도피비행, 폭력비행, 재산비행, 성비행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일원분산분석(ANOVA)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의 표IV-21 와 같이 청소년비행의 4가지 요인 모두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IV-21 가족과 함께하는 식사 시간에 따른 청소년비행의 차이(요인별)

n=246					
종속변수	30분 미만 (n=135) a	30분 이상 -1시간 미만 (n=95) b	1시간 이상 (n=16) c	F	Scheffé
도피비행	1.09	1.12	1.12	.352	-
폭력비행	1.05	1.07	1.04	.834	-
재산비행	1.07	1.09	1.09	.314	-
성비행	1.05	1.04	1.08	.339	-

4. 가족과 함께하는 가족식사에 대한 인식정도에 따른 학교부적응 및 비행 행동의 차이

1) 가족과 함께하는 가족식사에 대한 인식 정도 순위

조사 대상자들이 가족과 함께하는 가족식사에 대한 인식에 대하여 기술통계 분석을 통하여 가족식사에 대한 인식의 순위를 알아본 결과는 표IV-22와 같다. 분석 결과, 가족과 함께하는 가족식사에 대한 인식 중, 1순위는 ‘가족식사를 통해서 식사예절을 배울 수 있다.’($M=3.85, SD=.823$)이고, 2순위는 ‘가족과 함께 하는 식사시간이 가족 간의 유대를 가깝게 한다.’($M=3.80, SD=.737$)로 가족식사를 통해서 예절과 가족 간의 유대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3순위는 ‘가족과 함께 하루 한 끼 이상 식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M=3.74, SD=.795$)로 나타났고, 4순위는 ‘가족식사는 건강유지를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M=3.62, SD=.732$)이고, 5순위는 ‘우리가족은 식사시간이 가족과의 대화시간이다.’($M=3.44, SD=.838$)이며, 6순위는 ‘나는 가족과 함께하는 식사시간이 기다려진다.’($M=3.38, SD=.734$)로 나타나 가족 간의 대화와 화합을 위해서라도 가족과 함께하는 식사가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표IV-22 가족과 함께하는 가족식사에 대한 인식 순위

순위	구분	평균	표준편차
1	가족식사를 통해서 식사예절을 배울 수 있다.	3.85	.823
2	가족과 함께 하는 식사시간이 가족 간의 유대를 가깝게 한다.	3.80	.737
3	가족과 함께 하루 한 끼 이상 식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3.74	.795
4	가족식사는 건강유지를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	3.62	.732
5	우리가족은 식사시간이 가족과의 대화시간이다.	3.44	.838
6	나는 가족과 함께하는 식사시간이 기다려진다.	3.38	.734

2) 가족과 함께하는 가족식사에 대한 인식 집단에 따른 학교부적응 및 비행행동의 차이

가족과 함께하는 가족 식사에 대한 인식에 대하여 평균값의 중앙값을 도출하

여 중앙값보다 높은 집단을 고집단, 중앙값보다 낮은 집단을 저집단으로 구분하는 ‘중앙치 이분법’을 사용하여 집단분류를 실시하였다. 가족과 함께하는 가족식사에 대한 인식 총합의 중앙값은 3.667로 나타났고, 밥상머리 교육을 실시하는 응답자 246명 중 중앙값에 해당하는 응답자는 총 20명이었다. 따라서 중앙값 3.667보다 높은 집단을 가족과 함께 식사하는 것에 대한 인식이 높은 집단(n=109), 중앙값 3.667보다 낮은 집단을 가족과 함께 식사하는 것에 대한 인식이 낮은 집단(n=117)으로 구분하였으며, 중앙값에 해당하는 20명을 분석에서 제외시킨 후 분석을 실시하였다.

(1) 가족과 함께하는 가족식사에 대한 인식 집단에 따른 학교부적응 차이

가족과 함께하는 가족식사에 대한 인식의 고/저 집단에 따라 학교부적응 요인의 총점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t*-test를 실시한 결과는 표IV-23 과 같다. 분석결과 고/저 집단에 따라 학교부적응 요인의 총점은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t=5.614, p<.001$), 가족과 함께하는 가족식사에 대한 인식이 낮은 집단($M=1.51$)이 높은 집단($M=1.26$)에 비해서 학교부적응 수준이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표IV-23 가족과 함께하는 가족식사 인식 고/저 집단에 따른 학교부적응(전체) 차이
n=246

구분	저집단 (n=117)	고집단 (n=109)	<i>t</i>
학교부적응(총점)	1.51	1.26	5.614***

*** $p<.001$

또한, 학교부적응의 4가지 하위요인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t*-test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의 표IV-24 과 같이 고/저 집단 간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은 교사관계영역($t=4.776, p<.001$), 학습활동관계영역($t=5.943, p<.001$), 학교규칙준수관계영역($t=3.238, p<.001$)으로 나타났다. 교사관계영역에서는 가족과 함께하는 가족식사에 대한 인식이 낮은 집단($M=1.48$)이 높은 집단($M=1.21$)보다 학교생활에서 교사관계가 더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습활동관계영역

에서도 가족식사에 대한 인식이 낮은 집단($M=2.22$)이 높은 집단($M=1.65$)보다 학습활동관계가 더 좋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규칙준수관계영역에서도 가족식사에 대한 인식이 낮은 집단($M=1.18$)이 높은 집단($M=1.06$)보다 학교규칙을 더 잘 지키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IV-24 가족과 함께하는 가족식사에 대한 인식 고/저 집단에 따른 학교부적응의 요인별 차이
n=246

구분	저집단 (n=117)	고집단 (n=109)	t
교사관계영역	1.48	1.21	4.776***
교우관계영역	1.16	1.14	.543
학습활동관계영역	2.22	1.65	5.943***
학교규칙준수관계영역	1.18	1.06	3.238***

*** $p<.001$

(2) 가족과 함께하는 가족식사에 대한 인식 집단에 따른 비행 행동의 차이

가족과 함께하는 가족식사에 대한 인식의 고/저 집단에 따라 청소년비행의 총점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t -test를 분석한 결과는 표IV-25와 같이 고/저 집단에 따라 청소년비행 요인의 총점은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t=3.459$, $p<.001$), 가족과 함께하는 가족식사에 대한 인식이 낮은 집단($M=1.10$)이 높은 집단($M=1.04$)에 비해서 청소년비행 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IV-25 가족과 함께하는 가족식사의 인식 고/저 집단에 따른 청소년비행(전체) 차이
n=246

구분	저집단 (n=117)	고집단 (n=109)	t
청소년비행(총점)	1.10	1.04	3.459***

*** $p<.001$

또한, 고/저 집단에 따라 청소년 비행의 4가지 요인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t*-test를 분석한 결과는 표IV-26 과 같이 고/저 집단 간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은 도피비행($t=2.924, p<.001$), 성비행($t=3.446, p<.001$)으로 나타났다. 도피비행에서는 가족식사의 인식이 낮은 집단($M=1.15$)이 높은 집단($M=1.06$)보다 도피비행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비행에서도 가족식사에 대한 인식이 낮은 집단($M=1.09$)이 높은 집단($M=1.01$)보다 성비행 수준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IV-26 가족과 함께하는 가족식사 인식 고/저 집단에 따른 청소년비행(요인별) 차이
n=246

구분	저집단 (n=117)	고집단 (n=109)	<i>t</i>
도피비행	1.15	1.06	2.924***
폭력비행	1.07	1.05	.927
재산비행	1.08	1.06	.667
성비행	1.09	1.01	3.446***

*** $p<.001$

5. 밥상머리 예절교육 빈도에 따른 학교부적응 및 비행의 차이

1) 밥상머리 예절교육의 빈도

조사 대상자들이 밥상머리예절교육에 대한 응답 결과에 대하여 기술통계 분석을 통하여 밥상머리 예절교육의 빈도순위를 알아본 결과는 표IV-27과 같다.

밥상머리예절교육에 대한 응답 중, 1순위는 ‘자기가 먹은 그릇은 자기가 직접 치우도록 하신다.’($M=4.04, SD=1.429$)이고, 2순위는 ‘음식을 고르지 말고 골고루 먹도록 하신다.’($M=3.92, SD=1.301$)로 나타났다. 3순위는 ‘식사 전과 후에 잘 먹겠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등 음식을 만든 분에게 고마운 마음으로 인사말을 하도록 하신다.’($M=3.77, SD=1.490$)이고, 4순위는 ‘밥상에 차려진 음식은 가족들을 배

려하면서 함께 나눠먹으라고 하신다.’($M=3.62$, $SD=1.432$)이며, 5순위는 ‘부모님이나 웃어른이 수저를 들기 전에 먼저 먹어서는 안 된다고 하신다.’($M=2.87$, $SD=1.552$)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가정에서의 밥상머리예절교육에서 자녀들에게 자기주변을 스스로 정리하도록 하고 책임감과 협동심을 가르치는 교육이 가장 많음을 알 수 있었다.

표IV-27 밥상머리 예절교육의 빈도 순위

순위	구분	평균	표준편차
1	자기가 먹은 그릇은 자기가 직접 치우도록 하신다.	4.04	1.429
2	음식을 고르지 말고 골고루 먹도록 하신다.	3.92	1.301
3	식사 전과 후에 ‘잘 먹겠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등 음식을 만든 분에게 고마운 마음으로 인사말을 하도록 하신다.	3.77	1.490
4	밥상에 차려진 음식은 가족들을 배려하면서 함께 나눠먹으라고 하신다.	3.62	1.432
5	부모님이나 웃어른이 수저를 들기 전에 먼저 먹어서는 안 된다고 하신다.	2.87	1.552

밥상머리 예절교육의 각 항목에 대한 빈도분석 결과는 표IV-28 와 같다. ‘부모님이나 웃어른이 수저를 들기 전에 먼저 먹어서는 안 된다고 하신다.’는 ‘전혀 안 함’이 28.9%(71명)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고, 그 다음으로 ‘거의 매일’이 22.0%(54명), ‘1주일에 1-2번’이 19.9%(49명), ‘한 학기에 1-2번’이 19.1%(47명), ‘한 달에 1-2번’이 10.2%(25명)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전혀 안 함’의 28.9%를 제외하면 72% 정도는 최소한 한 학기에 한, 두번 정도라도 어른에 대한 공경, 위계질서에 대한 예절교육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식사 전과 후에 잘먹겠습니다, 잘먹었습니다 등 음식을 만든 분에게 고마운 마음으로 인사말을 하도록 하신다’는 ‘거의 매일한다’가 50.4%(124명)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 ‘1주일에 1-2번’이 15.0%(37명), ‘전혀 안함’이 13.0%(32명), ‘한 학기에 1-2번’이 12.2%(30명), ‘한 달에 1-2번’이 9.3%(23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전혀 안함의 13.0%를 제외하면 87.0%가 감사인사

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거의 매일 한다(50.4%) 와 1주일에 1~2회 한다(15.0%)가 65.4%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가정에서 감사의 마음을 알도록 하는 인성교육을 받는 학생이 비교적 많음을 알 수 있었다. ‘밥상에 차려진 음식은 가족들을 배려하면서 함께 나눠먹으라고 하신다.’는 ‘거의 매일’이 39.4%(97명)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고, 그 다음으로 ‘1주일에 1-2번’이 20.3%(50명), ‘한 달에 1-2번’이 15.4%(38명), ‘한 학기에 1-2번’이 11.8%(32명) 순으로 나타났으며, ‘전혀안함’은 13.0%(32명)로 나타나서 ‘전혀안함’의 13.0%를 제외한 대부분의 학생들이 배려의 교육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음식을 고르지 말고 골고루 먹도록 하신다.’는 ‘거의 매일’ 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44.7%(110명), 그 다음으로 ‘1주일에 1-2번’이 28.5%(70명), ‘한 달에 1-2번’이 10.6%(26명), ‘한 학기에 1-2번’이 6.1%(15명) 순으로 나타났으며, ‘전혀 안함’은 9.8%(24명)로 나타나 이 항목에 대한 교육도 90%가 넘는 학생이 절제와 건강에 대한 교육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자기가 먹은 그릇은 자기가 직접 치우도록 하신다.’는 ‘거의 매일’ 이 60.2%(148명), ‘1주일에 1-2번’이 15.4%(38명), ‘한 달에 1-2번’이 4.1%(10명), ‘한 학기에 1-2번’이 4.1%(10명) 순으로 나타났으며 ‘전혀 안함’은 13.0%(33명)로 나타나서 많은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자기주변을 스스로 정리하도록 하고 책임감과 협동심을 가르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표IV-28 밥상머리 예절교육의 빈도분석

	구분	빈도(n=246)	퍼센트(%)
웃어른이 수저 들기 전에 먼저 식사하지 않기	전혀 안함	71	28.9
	한 학기에 1-2번	47	19.1
	한 달에 1-2번	25	10.2
	1주일에 1-2번	49	19.9
	거의 매일	54	22.0
식사 전·후 음식을 만든 분에게 고마운 인사말 하기	전혀 안함	32	13.0
	한 학기에 1-2번	30	12.2
	한 달에 1-2번	23	9.3
	1주일에 1-2번	37	15.0
	거의 매일	124	50.4
가족들을 배려하면서 음식 나눠먹기	전혀 안함	32	13.0
	한 학기에 1-2번	29	11.8
	한 달에 1-2번	38	15.4
	1주일에 1-2번	50	20.3
	거의 매일	97	39.4
음식을 고르지 말고 골고루 먹기	전혀 안함	24	9.8
	한 학기에 1-2번	15	6.1
	한 달에 1-2번	26	10.6
	1주일에 1-2번	70	28.5
	거의 매일	110	44.7
	결측값	1	0.4
자기가 먹은 그릇은 스스로 치우기	전혀 안함	32	13.0
	한 학기에 1-2번	10	4.1
	한 달에 1-2번	18	7.3
	1주일에 1-2번	38	15.4
	거의 매일	148	60.2

2) 밥상머리 예절교육 집단에 따른 학교부적응 및 비행 행동의 차이

밥상머리 예절교육 집단을 구분하기 위하여 밥상머리 예절교육에 대한 평균값의 중앙값을 도출하여 중앙값보다 높은 집단을 고집단, 중앙값보다 낮은 집단을 저집단으로 구분하는 ‘중앙치 이분법’을 사용하였다. 밥상머리예절교육의 총합의 중앙값은 4.000으로 나타났고, 밥상머리 교육을 실시하는 응답자 246명 중 중앙값에 해당하는 응답자는 총 25명이었다. 따라서 중앙값 4.000보다 높은 집단을 밥상머리 예절교육이 높은 집단($n=109$), 중앙값 4.000보다 낮은 집단을 밥상머리 예절교육이 낮은 집단($n=112$)으로 구분하였으며, 중앙값에 해당하는 25명을 제외한 후 분석을 실시하였다.

(1) 밥상머리 예절교육 집단에 따른 학교부적응의 차이

밥상머리 예절교육의 고/저 집단에 따라 학교부적응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t -test를 분석한 결과는 표IV-29 과 같이 고/저 집단에 따라 학교부적응 요인의 총점은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6.665$, $p<.001$). 이로서 밥상머리 예절교육이 낮은 집단($M=1.52$)은 높은 집단($M=1.23$)에 비해서 학교생활에 부적응하는 정도가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IV-29 밥상머리 예절교육 고/저 집단에 따른 학교부적응(전체) 차이

n=246			
구분	저집단 (n=112)	고집단 (n=109)	t
학교부적응(전체)	1.52	1.23	6.665***

*** $p<.001$

또한, 밥상머리 예절교육의 고/저 집단에 따라 학교부적응의 4가지 하위요인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t -test를 실시한 결과 표 IV-30와 같이 교사관계영역($t=5.658$, $p<.001$), 교우관계영역($t=2.420$, $p<.01$), 학습활동관계영역($t=6.189$, $p<.001$), 학교규칙준수관계영역($t=4.030$, $p<.001$) 모두에서 유의한 차이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관계영역에서는 밥상머리 예절교육이 낮은 집단($M=1.49$)이 높은 집단($M=1.17$)보다 교사관계의 부적응 정도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우관계영역에서도 밥상머리 예절교육이 낮은 집단($M=1.20$)이 높은 집단($M=1.10$)보다 학교생활에서 교우관계의 부적응 정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습활동관계영역에서는 밥상머리 예절교육이 낮은 집단($M=2.22$)이 높은 집단($M=1.62$)보다 학습활동관계의 부적응 정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교규칙준수관계영역에서도 밥상머리 예절교육이 낮은 집단($M=1.18$)이 높은 집단($M=1.04$)보다 학교규칙을 잘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밥상머리예절교육을 받는 빈도가 많은 학생이 밥상머리예절교육을 받는 빈도가 적은 학생보다 학교부적응의 4가지 하위요인 모두에서 부적응 행동이 낮은 것을 의미한다.

표 IV-30 밥상머리 예절교육 고/저 집단에 따른 학교부적응(요인별) 차이

n=246

구분	저집단 (n=112)	고집단 (n=109)	t
교사관계영역	1.49	1.17	5.658***
교우관계영역	1.20	1.10	2.420**
학습활동관계영역	2.22	1.62	6.189***
학교규칙준수관계영역	1.18	1.04	4.030***

*** $p < .001$, ** $p < .01$

(2) 밥상머리 예절교육 집단에 따른 비행 행동의 차이

밥상머리 예절교육의 고/저 집단에 따라 비행 요인의 총점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t -test를 분석한 결과는 표 IV-31와 같이 밥상머리 예절교육의 고/저 집단에 따라 비행 행동의 총점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t=3.379$, $p < .001$). 즉, 밥상머리 예절교육이 낮은 집단($M=1.10$)이 높은 집단($M=1.04$)보다 비행 정도가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표IV-31 밥상머리 예절교육 고/저 집단에 따른 비행 행동(전체) 차이

n=246

구분	저집단 (n=112)	고집단 (n=109)	t
청소년비행(총점)	1.10	1.04	3.379***

*** $p < .001$

또한, 밥상머리 예절교육의 고/저 집단에 따른 비행 행동의 4가지 하위요인에 대해서 t -test를 분석한 결과는 표IV-32 과 같이 밥상머리 예절교육의 고/저 집단 간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은 도피비행($t=1.785, p < .05$), 폭력비행($t=3.297, p < .001$), 성비행($t=3.049, p < .001$)으로 나타났다. 도피비행에서는 밥상머리 예절교육이 낮은 집단($M=1.13$)이 높은 집단($M=1.07$)보다 도피비행 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폭력비행에서는 밥상머리 예절교육이 낮은 집단($M=1.08$)이 높은 집단($M=1.02$)보다 폭력적인 부분의 비행 행동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성비행에서도 밥상머리 예절교육이 낮은 집단($M=1.08$)이 높은 집단($M=1.01$)보다 청소년 비행 수준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재산비행에서는 밥상머리예절교육의 고/저 집단에 따른 차이가 없었다.

표IV-32 밥상머리 예절교육 고저집단에 따른 청소년비행(요인별) 차이

n=246

구분	저집단 (n=112)	고집단 (n=109)	t
도피비행	1.13	1.07	1.785*
폭력비행	1.08	1.02	3.297***
재산비행	1.10	1.06	.921
성비행	1.08	1.01	3.082***

*** $p < .001, *p < .05$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최근 몇 년 사이 심각한 양상을 띠고 있는 학교폭력 등 청소년의 학교부적응 및 비행 행동의 예방을 위해서 가정에서부터 인성교육을 되살릴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의 일환으로 재조명되고 있는 밥상머리교육의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수행되었으며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이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 연구문제 1. 밥상머리교육 실시여부에 따라 중학생의 학교부적응 및 비행행동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 연구문제 2. 밥상머리교육을 받는 학생의 경우 가족과 대화하며 식사한 기간과 식사 횟수, 식사 시간에 따라 중학생의 학교부적응 및 비행행동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 연구문제 3. 밥상머리에서 가족과 함께하는 가족식사에 대한 인식정도에 따라 중학생의 학교부적응 및 비행행동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 연구문제 4. 밥상머리에서 예절교육을 받는 빈도에 따라 중학생의 학교부적응 및 비행행동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이러한 연구문제에 대한 가설을 설정하고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방법으로 제주도내 중학생 350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밥상머리교육이란 가정에서 가족과 함께 밥상머리에 앉아 대화를 하면서 식사를 하는 것으로 전체한 뒤, 이를 위하여 우선 가정에서의 밥상머리교육의 실태를 파악하고, 밥상머리교육의 실시 여부가 중학생의 학교부적응 및 비행 행동에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가족과 함께 대화를 하면서 식사한 기간과 식사 횟수, 1회 식사하는 시간에 따라 학교부적응 및 비행 행동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려고 하였으며, 가족과 함께 하는 가족식사에 대한 인식정도에 따라 학교부적응 및 비행 행동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그리고 밥상머리에서 웃어른으로부터 배우는 밥상머리 예절교육의 빈도에 따라 학교부적응 및 비행 행동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학교부적응의 유형은 교사관계영역, 교우관계영역, 학습활동관계영역, 학교규칙준수관계영역의 4가지 하위영역으로 분류하였으며, 비행의 유형은 도피비행, 폭력비행, 재산비행, 성비행의 4가지 하위영역으로 분류하였다.

1. 논의

연구의 주요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밥상머리교육의 실시 여부에 따른 중학생의 학교부적응 및 비행 행동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우선 중학생의 밥상머리교육의 실시 여부를 분석하였으며, 각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각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밥상머리교육 실태를 분석한 결과는 74.1%가 밥상머리교육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김숙경(2014)의 연구(67.3%)에서보다 높게 나타난 것은 지역적인 특성도 있겠지만 교육부의 적극적인 밥상머리교육 캠페인이 확대되고 있는데서 오는 결과라고 해석된다. 밥상머리교육의 실시여부에 따른 중학생의 학교부적응 및 비행 행동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학교부적응 전체 및 4개의 하위 영역 모두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비행 행동의 전체 및 4개의 하위영역 모두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밥상머리교육이 중학생의 사회성, 준법성, 건전성 등 도덕성 발달수준이 높게 나타났다는 김숙경(2014)의 연구결과와 가족과 함께하는 가족식사 빈도가 초등학생 자녀의 사교성과 준법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유계숙 외(2011)의 연구결과, 밥상머리교육활동이 유아의 조망수용능력, 즉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을 경험하게 된다는 최미숙·최선미(2013)의 연구결과를 지지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둘째, 밥상머리교육을 받는 학생의 경우 가족과 대화하며 식사한 기간, 주당 식사 횟수, 1회의 식사 시간에 따른 학교부적응 및 비행 행동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밥상머리에서 가족과 함께 대화하며 식사한 기간에 따라 학교부적응 중 교사관계

영역과 학교규칙준수관계 영역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족과 함께하는 식사 횟수에 따라 교사관계영역, 학습활동관계영역, 학교규칙준수관계영역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식사 횟수가 ‘주 1회’, ‘주 2회’, ‘주 3회’인 집단은 ‘주 4회’인 집단보다 교사관계영역에서 학교부적응 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주 1회’인 집단은 ‘주 5회 이상’인 집단보다 학교부적응 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생의 비행 행동 중에서는 도피비행과 폭력비행, 성비행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족과 대화하며 식사한 기간이 ‘1년 이상 3년 미만’인 집단은 ‘7년 이상’인 집단보다 도피비행과 폭력비행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족과의 식사 횟수가 ‘주 1회’인 집단은 ‘주 4회’인 집단보다 도피비행 수준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고, 가족과의 식사 횟수가 ‘주 2회’인 집단은 ‘주 5회 이상’인 집단보다 성비행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가정에서 가족과 함께 대화하며 식사하는 밥상머리교육 기간이 오래될수록, 가족과 함께 식사하는 횟수가 많을수록 학교폭력 등 비행 행동을 예방하는데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가 함께 식사하는 횟수가 많을수록 자녀의 학교생활적응도가 높다는 이현아(2014)의 연구와 밥상머리교육 횟수가 준법성, 책임성, 친절성에 유의한 차이가 있다는 김숙경(2014)의 연구결과를 뒷받침하고 있으며, 가족식사 빈도가 높을수록,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높을수록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와 학교적응수준도 높다는 배희분 외(2013)의 연구결과를 지지한다. 또한 가족과 식사를 자주하지 않는 청소년의 경우가 음주, 흡연, 마리화나 비율 등 청소년 비행이 높다는 콜롬비아대학교 약물오남용 연구센터(CASA, 2011)의 연구결과, 가족식사 빈도와 음주, 흡연, 마리화나 남용, 우울증, 자살률 등 부적응 행동은 반비례한다는 미네소타대학 EAT프로젝트 연구결과(2004), 주당 가족식사 횟수가 많은 청소년이 약물중독, 우울, 부적응이 높다는 신시네티 아동병원 블레이크보우덴 연구팀(2006)의 연구결과를 뒷받침해주는 결과로 해석된다.

한편, 가족과 함께하는 식사 시간에 대한 분석결과는 학습활동관계영역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사관계, 교우관계, 학교규칙준수 관계 등에는 식사 시간이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어 식사시간은 중학생의 도덕성 발달에 차이가 없다고 한 김숙경(2014)의 연구결과를 뒷받침 해준다. 더욱이 본 연구에서 1회 식사 시간이 30분 이상 1시간 미만인 집단이 30분 미만인 집단보

다 오히려 학습활동관계영역에서 높은 부적응 수준을 나타내고 있어서, 이는 식사 시간에 부모로부터 긴 시간 동안 밥상머리교육을 받는 것은 중학생들에게 지루하게 들리거나 잔소리로 귀찮아할 수도 있다는 반증일 수도 있고, 특히 학습시간을 빼앗긴다는 인식에서 학습활동 관계영역에서만 부적응 행동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추측해볼 수 있어서 긴 시간 보다는 30분 정도의 시간이 밥상머리교육으로 효과적일 수 있음을 나타내는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다.

셋째, 밥상머리에서 가족과 함께하는 가족식사에 대한 인식 정도에 따른 학교 부적응 및 비행 행동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에서는 가족식사에 대한 인식 정도가 긍정적으로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서 학교부적응 및 비행 수준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하위영역별로는 학교부적응 요인 중 교사관계영역, 학습활동관계영역, 학교규칙준수관계영역에서, 비행 요인 중에서는 도피비행과 성비행에서 가족식사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정도가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서 부적응 및 비행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온 가족이 함께 식사를 할 때가 가장 즐겁다는 인식이 72.0%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된 장영수(2013)의 연구결과와 중학생들의 가족식사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면에서 본 연구와 일치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가족식사에 대한 중학생들의 인식을 분석한 바에 따르면 ‘가족식사를 통해서 식사예절을 배울 수 있다’($M=3.85, SD=.823$), ‘가족과 함께하는 식사시간이 가족 간의 유대를 가깝게 한다’($M=3.80, SD=.737$), ‘가족과 함께 하루 한 끼 이상 식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M=3.74, SD=.795$), ‘가족식사는 건강유지를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M=3.62, SD=.732$), ‘우리가족은 식사시간이 가족 간의 대화시간이다’($M=3.44, SD=.838$), ‘나는 가족과 함께하는 식사시간이 기다려진다’($M=3.38, SD=.734$) 순이며, 가족과 함께하는 가족식사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은 평균 3.64점으로 가족식사에 대해서 비교적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가족과 함께하는 가족식사가 중요하며(69%), 즐겁다(65.1%)고 나타난 이정선(2009)의 연구결과를 뒷받침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렇듯 중학생들이 가정에서 가족과 함께하는 가족식사의 중요성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만큼 추후 가정에서는 자녀와 함께 더 많은 가족식사의 기회를 가지고 따뜻하게 소통할 필요가 있다.

넷째, 밥상머리에서 배우는 예절교육의 빈도에 따른 학교부적응 및 비행 행동

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자기가 먹은 그릇은 자기가 직접 치우도록 하신다’($M=4.04$, $SD=1.429$)고 하는 교육의 빈도가 가장 많아 자녀들에게 책임감과 협동심을 가르치는 가정이 많다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다. 다음으로 ‘음식을 고르지 말고 골고루 먹도록 하신다’($M=3.92$, $SD=1.301$)로 나타나 자녀들에게 이기심을 갖지 않도록 절제와 인내심을 가르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식사 전과 후에 잘 먹겠습니다, 잘 먹었습니다’($M=3.77$, $SD=1.490$) 등 음식을 만든 분에게 고마운 마음으로 감사인사를 하도록 하는 교육에서는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을 가지도록 가르치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밥상에 차려진 음식은 가족들을 배려하면서 함께 나눠먹도록 하는 교육’($M=3.62$, $SD=1.432$)에서는 타인을 배려할 줄 아는 배려심을 키워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부모님이나 웃어른이 수저를 들기 전에 먼저 음식을 먹어서는 안된다’($M=2.87$, $SD=1.552$)는 예절교육은(‘전혀 안함’ 28.9%) 다른 예절교육 항목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대상자 중 밥상머리예절교육의 5개 항목을 평균하여 16% 정도를 제외하면 나머지 84% 정도의 학생은 많게는 매일 적게는 한 학기에 한 번 정도 우리의 전통예절인 밥상머리 예절교육 내용에 대해서 교육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본 연구에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한편 밥상머리예절교육의 빈도에 따른 학교부적응 및 비행 행동에 대한 차이 분석에서는 밥상머리예절교육을 받는 빈도가 높은 고집단의 경우가 저집단에 비해서 학교 부적응 전체 및 교사관계, 교우관계, 학습활동관계, 학교규칙준수관계의 하위영역 모두에서 학교부적응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행 행동의 경우에도 밥상머리예절교육의 빈도가 높은 고집단의 경우가 저집단에 비해서 청소년 비행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비행의 하위요인 중 도피비행, 폭력비행, 성비행에서 비행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밥상머리에서 웃어른으로부터 배우는 예절교육이 중학생들의 학교부적응 및 비행 수준을 낮추는데 긍정적인 교육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여러 학자와 전문가들이 내세우고 있는 우리의 전통적인 밥상머리예절교육이 자녀들의 인성교육에 효과가 있음을 입증해주고 있는 결과라고 해석된다. 다만, 밥상머리예절교육에 대한 선행연구를 찾아보기 힘든 상황이어서 비교 논의 대상이 없다는 것은 아쉬운 점이다.

2. 결론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로 중학생의 학교부적응 및 비행 행동과 밥상머리교육과의 상관관계를 확인하였고, 밥상머리교육의 실시 여부가 중학생의 학교부적응 및 비행 행동에 유의한 차이가 있음이 확인되었으며, 이를 토대로 청소년들의 학교부적응 및 비행 예방을 위한 인성교육의 대안으로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밥상머리교육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정도와 중학생의 학교부적응 및 비행행동과는 높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 가정에서의 밥상머리교육을 실시하는데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이다.

셋째, 밥상머리 예절교육이 자녀들에게 예절과 공경, 스스로의 절제와 인내심,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 책임감과 협동심 등 바른 인성을 심어줄 수 있는 가정에서의 가치 있는 교육임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를 근거로 밥상머리 예절교육에 대한 대중적 관심을 환기시키고 밥상머리교육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밥상머리예절교육에 대한 선행연구가 없는 실정이어서 구조화된 질문지를 사용하지 못하였다는 제한점이 있는데, 추후 연구에서는 본 연구가 참고자료가 되기를 기대한다.

둘째, 본 연구는 제주도내의 중학생만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는데, 본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기 위해서는 추후 초, 중, 고등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지역을 달리하여 추가적으로 연구한다면 일반화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셋째, 가정에서 부모님이나 웃어른으로부터 배우는 우리의 전통적인 밥상머리예절교육을 많은 학생들이 받고 있고, 이러한 예절교육을 받는 학생이 그렇지 않은 학생에 비해서 학교부적응 및 비행 행동이 유의하게 낮은 것을 확인하였

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에 대해서 비교할 수 있는 선행연구가 없는 실정이어서 추후 연구에서는 본 연구결과를 참고로 하여 밥상머리에절교육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를 진행한다면 밥상머리에절교육의 효과성을 더 면밀히 검증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넷째,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가정에서만만이 아니라 학교에서도 밥상머리교육을 통한 청소년들의 바른 인성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광범위한 밥상머리에절교육의 내용을 개발하고 보급할 수 있는 정부차원의 지원방안을 강구할 것을 제언하고자 한다.

참 고 문 헌

- SBS 스페셜제작팀 (2015). **밥상머리의 작은 기적**. 서울: 웅진씽크빅.
- 강귀애 (2015). **부모-자녀 애착관계가 청소년의 공격성과 대인관계 및 학교부적응에 미치는 영향**. 백석대학교 기독교전문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강민중 (2014). **밥상머리교육 - 교육의 시작이다**. *남명학연구원/선비문화* 26.
- 경미현 (2013). **가정환경이 청소년 비행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관계부처합동 (2013.7). **현장 중심 학교폭력대책 : 학교폭력, 현장에서 해결한다**. 교육과학기술부·서울대학교학부모정책연구센터 (2012a). **밥상머리교육 학부모용 길라잡이**.
- 교육과학기술부·서울대학교학부모정책연구센터 (2012b). **밥상머리교육 학부모용 길라잡이 워크북**.
- 교육부 (2013.8). **인성교육 강화 기본계획**.
- 교육부·서울대학교 학부모정책연구센터 (2015). **밥상머리교육 학부모용 길라잡이**.
- 권정은, 박희진, 임현숙, 천종희 (2013). **중학생의 가족식사 횟수에 따른 식사행동, 식품섭취 및 삶의 만족도**. *한국식생활문화학술지*, 28(3), 272-281.
- 김규학 (2013). **청소년의 학교폭력비행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구한의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기태외 (1996). **학교부적응 문제를 가진 청소년을 위한 문제해결 프로그램 연구**. *사회복지연구소*, 6.
- 김동하 (1991). **국민학교 아동의 부적응행동 감소를 위한 프로그램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미선 (2011). **가족식사 참여도가 식습관, 인성특성 및 푸드네오포비아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성식 (2000). **학교부적응 실태조사 및 적응프로그램 개발**. 서울: 한국청소년교육연구회.

- 김숙경 (2014). **밥상머리교육여부에 따른 중학생의 사회성, 도덕성 발달 차이**. 명지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신, 박민경, 안지선 (2014). 학교생활적응과 부모의 양육행동이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 부모 양육행동 유형의 조절효과 검증. **청소년 복지연구**, 16(2).
- 김연순 (2001). **代案學校 學生의 學校生活 滿足度에 關한 研究**. 대구카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응수, 주석진 (2010). 도시와 농촌지역 청소년의 학교부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비교연구. **청소년학연구**, 17(11), 183-203.
- 김인희 (2004). **밥상머리교육부터 다시 하자**. 서울: 집문당
- 김종남, 민희진, 채정민 (2013). 가족동반식사가 자녀의 심리에 미치는 영향. **대한영양사협회 학술지** 19(2), 140-158.
- 김종일, 이기영(2010). **밥상머리에서 배워요**. 경기도: 베이비북스.
- 김준경 (2007). **부모와 또래에 대한 애착이 청소년들의 위험행위와 비행에 미치는 영향 : 교정시설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평택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지선 (2000). 청소년비행 연구 동향에 대한 수량적 고찰. **청소년학연구**, 7(2), 183-219.
- 김지현 (2002). **학교부적응 청소년을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 효과 : 대상관계 이론을 중심으로**. 명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현주 (2000). **학교사회사업 도입을 위한 청소년들의 학교부적응 요인 분석**.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형철 (2000). **초등학교 아동의 스트레스와 학교생활 적응과의 관계**.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혜영 (2014). **학대경험이 청소년의 학교부적응행동에 미치는 영향과 적응 유연성 조절효과 연구**. 경남과학기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혜진 (2013). **학교부적응 청소년의 사회성 향상을 위한 통합예술치료 프로그램 개발연구 : 사이코드라마를 활용하여**.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근수 (2003). **실업계고등학교 학생의 자아존중감과 학교부적응행동과의 관계**.

-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기용 (2013). 사례로 본 밥상머리교육. **남영학회, 선비문화, 24**.
- 박미정 (2012). 영상매체 활용 예술치료 프로그램이 학교부적응 청소년의 사회성과 자존감 향상에 미치는 효과.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연수 (2003). 이혼가정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은주 (2011). 비행청소년의 학교적응을 위한 사회적 기능성 증진프로그램 효과성 연구. 백석대학교 상담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정미 (1984). 중.고등학생의 학교적응 태도와 자아개념과의 관계.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지경 (2009). 부모애착과 친구애착이 청소년 비행에 미치는 영향. 한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배희분, 옥선화, 양경선 (2013). 가족식사 빈도가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 부모와의 의사소통의 매개효과. **한국청소년학회, 청소년학연구, 20(4)**, 125-149.
- 배희분 (2014). 가족식사 프로그램이 가족식사환경, 부모자녀의사소통, 부모효능감에 미치는 효과 : 중학생의 부모를 대상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서윤정 (2010). 중학생의 자아상태와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및 학교부적응 행동 간의 관계.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손미영, 김영희 (2009). 가족갈등과 자기통제가 초기 청소년의 학교부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7(5)**.
- 손민경 (2005). 청소년의 부모와의 의사소통, 자아존중감 및 행동문제가 학교생활 부적응에 미치는 영향. 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송병호 (2005). 가정의 심리적 환경과 청소년 비행에 관한 연구. **한국범죄심리학회, 한국범죄심리연구, 1**, 183-228.
- 신동숙 (2007). 부모가 지각하는 청소년비행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요인에 관한 연구. 신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안규문, 밀레코리아대표 조윤숙부부, 김민희 (2013). 자녀교육 밥상머리에서 길을 찾다. **주간조선통권, 2246**, 70-73.
- 안순일 (2006). 아름다운 교육의 초석을 다지는 밥상머리교육의 실현. **교육평론**,

- 15(164), 83-86.
- 엄순옥 (2009). 가정폭력 노출경험이 청소년 비행에 미치는 영향 분석. 한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여성가족부 (2012). 청소년 유해환경 접촉 종합실태조사.
- 에스퍼 올, 김태희 역 (2012). 밥상머리의 행복한 기적. 서울: 도서출판 베가북스.
- 우수명 (2013). 기적의 성품학교. 서울: 아시아 코치센터.
- 원종아 (2010). 학교부적응 청소년의 애착 및 대인관계 향상을 위한 모-자(母-子) 미술치료 단일 사례연구. 순천향대학교 건강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계숙, 김수화, 임정현, 최혜림, 채희화 (2011). 가족여가활동, 가족식사활동빈도와 가족친밀도가 초등학교 자녀의 사회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5(3).
- 유안진, 이점숙, 서주현 (2003). 청소년의 부모양육지각과 학교적응과의 관계. 한국가족관계학회지, 9(3), 161-180.
- 유영덕, 한수정 (1996). 학교생활 부적응 아동의 부적응 요인감소를 위한 학교사회사업 집단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 태화임상사회사업연구, 3.
- 윤여원 (2014). 가정환경이 청소년 비행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영준 (2009). 청소년비행에 대한 스포츠의 역할.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경화, 손원경 (2005). 아동의 학교부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변인의 구조분석. 한국아동학회, 아동학회지, 26(4), 157-171.
- 이경복 (2000). 청소년비행의 예방책과 예방사목. 서강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경은 (1998). 學校生活 不適應 類型과 要因에 따른 學校社會事業서비스 欲求에 관한 研究. 대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규미 (2004). 중·고등학교 교사가 지각한 학교부적응 행동지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심리치료, 16(2).
- 이기영 (2011). 세상을 살리는 밥상머리교육-세살밥상운동. 미래사목연구소, 사목정보, 4(10), 106-112.

- 이기영 (2013). 환경교육으로 밥상머리교육을 되살리자. **환경관리연구소, 첨단 환경기술**, 21(12), 43-53.
- 이기완, 조용주 (2007). 중·고등학생의 가족식사에 대한 인식과 태도 연구. **동아시아식생활학회, 동아시아식생활학회지**, 17(5).
- 이동훈, 정원식 (2007). 위기청소년의 반사회적 행동 예방 및 개입프로그램 개발 연구 : 초등학교 고학년(5,6학년)용 학교부적응 진단도구 개발. 서울: 한국청소년상담원.
- 이미나 (2013). 중학생의 학교폭력 실태 및 예방교육 분석을 통한 개선방안. 용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미영 (2010). 부모양육태도와 가족의 구조적 요인이 자기통제력 및 청소년 비행에 미치는 영향. 전주대학교 상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범재 (1991). 중학생의 학교생활 부적응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상필 (1991). 學校 生活 適應水準에 따른 學業成績 및 行動特性의 差異 分析. 홍익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성구 (2000). 비행청소년의 이해. 서울: 제3공간.
- 이영경 (2013). 청소년의 가족탄력성, 자기효능감, 정신건강요인이 청소년 비행에 미치는 영향 : 구조방정식 모형을 중심으로. 한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영희 (2014). 유대인의 밥상머리자녀교육. 서울: 규장각.
- 이정선 (2009). 전주지역 초등학생의 가족식사에 대한 식생활지침 실천도 비교. 원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지혜 (2012). 중학생의 기질 및 성격특성과 학교부적응에 관한 연구. 전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현아 (2014). 가족식사가 자녀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 학부모 인식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생활과학연구소,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8(3).
- 이효임 (2014).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가정·학교·지역사회 협력방안. 서울특별시 교육연구정보원, 서울교육, 56(1), 156-163.
- 장연심 (2003). 학교부적응 청소년의 문제행동과 자아존중감의 관계. 명지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영수 (2013). 가족식사 빈도와 식생활지침 순응도 및 부모-자녀 관계와의 연관성 분석 : 안산지역 청소년 중심으로. 숙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전영실 (2002). 부모의 훈육과 비행의 관계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13(1), 89-121.
- 전재천 (2000). 초등학생의 집단 따돌림과 부모의 양육태도, 학교적응과의 관계.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강균 (2007). 청소년 비행의 실태분석에 관한 연구 : 포천지역 중학교 학생을 중심으로. 광운대학교 정보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귀화 (2002). 충동성과 가족의 구조적 결손이 청소년 비행에 미치는 영향.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유진 (1999). 청소년 학교생활 적응의 관련 변인.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혜미 (2008). 부모와의 애착관계가 청소년 비행에 미치는 영향. 경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미숙 (1999). 가정폭력 목격이 자녀의 심리·사회적 부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복지학회, 한국가족복지학, 4, 295-326.
- 조주섭, 정용배 (2010). 성공적 삶의 베이스캠프-밥상머리. 서울: 제임스컨설팅.
- 최미숙, 최선미 (2013). 밥상머리교육활동이 유아의 자아존중감 및 조망수용능력에 미치는 영향. 한국생태유아교육학회, 생태유아교육연구학술지, 12(3), 81-1-3.
- 한선미 (2014). 학습부진 학교 부적응중학생의 동기향상을 위한 Wee클래스 도자기공예프로그램 연구.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한운택 (2007). 효 실천 교육에 의한 청소년비행 예방연구. 성산효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Compan, E., Moreno, J., Ruiz, M. T. & Pascual, E. (2002). Doing things together : adolescent health and family rituals. *Journal of Epidemiology and Community Health*, 56(2), 89-94.
- Compas, B. E., Hinden, B. R. & Gerhardt, C. A. (1995). Adolescent Development : Pathways and Processes of Risk and Resilience.

Annual Review of Psychology, 46, 265-293.

- D'Angelo, L. L., Weinberger, D. A., & Feldman, S. S. (1995). Like father, like son? Predicting male adolescents' adjustment from parents' distress and self-restraint. *Developmental Psychology, 31(6)*, 883-896.
- Eisenberg, M., Olson, R., Neumark-Sztainer, D., Story, M. & Bearinger, L. (2004). *Correlations between family meals and psychosocial well-being among adolescents.*
- Eisenberg, M., Neumark-Sztainer, D., Fulkerson, J. A. & Story, M. (2008). Family Meals and Substance Use: Is There a Long-Term Protective Association?. *Journal of Adolescent Health, 43(2)*, 151-156.
- Fulkerson, J. A. Story, M. Mellin, A., Leffert, N., Neumark-Sztainer D. & French, S. A. (2006). Family dinner meal frequency and adolescent development: Relationships with developmental asserts and high-risk behaviors. *Journal of Adolescent Health, 39(3)*, 337-345.
- Neumark-Sztainer, D., Nicole I Larson, Jayne A. Fulkerson, Marla E. Eisenberg & Mary Story. (2010). Family meals and adolescents: What have we learned from project EAT(Eating among teens?). *Public Health Nutrition, 13(7)*, 1113-1121.

<Abstract>

The difference in maladjustment to school and delinquency behavior of middle school students according to implementation of in family education at the dinner table

Jang Woo Soon

Jeju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ounseling
psychology major

Thesis director Choi Bo Young

This study aims to whether implementation of in family education at the dinner table brings meaningful difference to maladjustment to school and delinquency behavior by middle school students. In order to explore the difference caused by the courtesy education learned from seniors in family to maladjustment to school and delinquency behavior, the following research agendas were established.

- Research agenda 1. Whether implementation of in family education at the dinner table brings meaningful difference in maladjustment to school and delinquency behavior of middle school students.
- Research agenda 2. In case of students with opportunity in family education at the dinner table, do the period of dining and conversation with family, number and duration and time of dining occasion brings meaningful difference in maladjustment to school and delinquency behavior of middle school students.
- Research agenda 3. Does the level of recognition on the family dining with family members bring meaningful difference in

maladjustment to school and delinquency behavior of middle school students?

Research agenda 4. Does the frequency of courtesy lesson in family brings meaningful difference to maladjustment to school and delinquency behavior of middle school students?

To resolve the above research agendas, a survey was implemented by self input questionnaires method by sampling 350 students in 4 public middle schools in Jeju Island. During 5 days from Oct 12 to Oct 16 2015, the researcher visited the schools to explain on the questionnaires and collecting the responses.

As for the measurement tool for this study, the measure of in family education at the dinner table was used as the combination of the questionnaires developed and used by Kim Sook Kyung(2014), the questions used by Lee Jung Sun(2009) as well as the questions on in family courtesy education developed by the researcher (14 questions in total, 5 score Likert method). As the measurement tool for maladjustment to school, the survey used by Park Jung Mi (1984), Lee Sang Pil et al.(1991), Chun yong Che(1992) etc. divided by Kim Hye Young(2014) in four categories of factors of maladjustment to school (relationship with teacher, relationship with friends, relation with school life, relation with observation of school regulations)(24 questions in total, 5score Likert method) was used. As the diagnosis measurement for youth delinquency , the diagnosis measure by Kyung Mi Hyun (2013)(33questions in total, 5 score Likert method)which combined the factor of delinquency used by Chun Young Sil (2001) and Chung Kwi Hwa(2001) together as 4 sub factors (escape delinquency, violence delinquency, property delinquency, sexual delinquency) in composition.

For data analysis, technical statistics analysis such as frequency analysis, correlation analysis, *t*, *F*-verification, one way anova analysis and ex post verification, regression analysis were implemented by SPSS 20.0.

Based on the result of this study, the content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ly, from the analysis on the difference in maladjustment to school and delinquency behavior of middle school students according to whether in family education at the dinner table is given or not, whether in family education at the dinner table was given showed meaningful difference in both total factors and sub factors of maladjustment to school and delinquency behavior by middle school students. It was analyzed that the students with in family education at the dinner table showed meaningfully low maladjustment to school and delinquency behavior than those without such education.

Secondly, the result of analysis on the difference in maladjustment to school and delinquency behavior according to the period of dining with family,

number and frequency of such dining out of the students with in family education at the dinner table, the difference in maladjustment to school showed meaningful difference at the area of relationship with teacher and the area of observation of school regulations according to the period of such dining. The meaningful difference appeared in the area of relationship with teacher, area of relationship with learning activities, area of observation of school regulations according to the number of dining. Also meaningful difference appeared at the area of relationship with learning activities according to dining time.

The analysis result on the difference in delinquency behavior showed meaningful difference in escape delinquency and violence delinquency according to the period of dining, and in sex delinquency according to number of dining. According to ex post analysis result, no difference appeared between groups according to dining period. But the group with number of dining at twice per week showed higher sex delinquency level than the group with more than 5 times per week. The analysis of difference in dining time did not show meaningful difference.

Thirdly, according to the analysis on the difference of maladjustment to school and delinquency behavior according to the level of recognition on the family dining with family members, the group with positive recognition on the family dining with family members showed lower level in both of maladjustment to school and youth delinquency in comparison with the group with low positive recognition level.

Fourth, the analysis result on the difference in maladjustment to school and delinquency behavior by middle school students, according to the frequency of taking in family courtesy education, the group with frequent in family courtesy education showed lower level of maladjustment to school than the group with less frequent education in all four sub factors of maladjustment to school. In case of youth delinquency, the group with frequent in family courtesy education showed lower level of delinquency than the group with less frequent education in escape delinquency, violence delinquency, sex delinquency out of all four sub factors of delinquency behaviors.

These results provide the following implications.

Firstly, the existence of correlation between in family education at the dinner table and maladjustment to school and delinquency behavior was verified. Based on this, future alternatives can be presented to prevent maladjustment to school and delinquency behavior of youth, and provide proper view on one's life.

Secondly, this study would provide the basic material to design in family education at the dinner table program within the family and practice education, by analysis on the contents of courtesy education within the family.

Thirdly, the scope of study was limited to middle school students in Jeju region only. So this study is anticipated to bring about the interest on the importance of in family education at the dinner table, so that future researchers may expand the scope of their study out to other regions, school classes so that the personality education within family can be established from the low age and youth delinquency such as school violence would be prevented.

부 록 목 차

부록1. 밥상머리교육 설문지.....	87
부록2. 학교부적응 설문지.....	89
부록3. 청소년 비행 설문지.....	91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바쁘신데도 본 연구에 참여하여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설문지는 청소년들의 가정에서 밥상머리교육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지, 밥상머리교육의 실시 여부가 청소년의 학교부적응 및 비행행동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연구목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여러분의 답변 내용은 이름도, 나이도, 학교도 전혀 밝혀지지 않는 철저히 비밀이 보장되는 자료이며, 연구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으므로 본 질문문항에 대해서 솔직하게 응답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소중한 시간을 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2015년. 10월. 일.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과정 상담심리 전공

지도교수 : 최 보 영

연구자 : 장 우 순

I. 다음은 일반사항입니다. 잘 읽고 해당하는 곳에 V 표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1.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① 남() ② 여()
 2. 아버지의 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초등학교졸업이하() ② 중학교졸업() ③고등학교졸업()
④대학교졸업 이상()
 3. 어머니의 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초등학교졸업이하() ② 중학교졸업() ③고등학교졸업()
④대학교졸업 이상()
 4. 여러분의 가정은 어느 정도의 경제수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아주 못산다() ② 못산다() ③보통이다() ④잘산다()
⑤아주 잘산다()
 5. 귀하와 함께 살고 있는 가족은 귀하를 포함해서 모두 몇 명입니까?
① 2명() ② 3명() ③ 4명() ④ 5명()
⑤ 6명이상()
 6. 귀하가 식사할 때 함께 식사하는 가족 모두에 'V'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①아버지() ②어머니() ③할아버지() ④할머니()
⑤형제자매들()
 7. 귀하의 가정에서는 현재 밥상머리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밥상머리교육이란 '가족끼리 함께 밥상(식탁)에 앉아 대화를 하면서
식사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① 예() ② 아니오()
- '예' 라고 답한 학생은 아래의 II, III, IV, 의 질문에 답변해주세요,
'아니오' 라고 답한 학생은 III, IV. 의 질문에 답변해주세요

II. 다음은 밥상머리교육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1. 밥상머리에서 가족과 함께 대화하며 식사한 기간, 식사횟수, 식사 시간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해당하는 곳에 V 표 해주시기 바랍니다.

- 1) 귀하가 지금까지 밥상(식탁)에서 가족과 함께 대화하며 식사한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① 1년 미만() ② 1년이상 ~ 3년 미만() ③ 3년이상 ~ 5년 미만()
④ 5년 이상 ~ 7년미만() ⑤ 7년이상()
- 2) 귀하가 밥상(식탁)에서 가족과 함께 식사하는 횟수는 1주일에 평균 몇 번입니까?
① 주 1회() ② 주 2회() ③ 주 3회() ④ 주 4회() ⑤ 주 5회 이상()
- 3) 귀하가 가족과 함께 식사하는 시간은 1회 평균 어느 정도입니까?
① 30분미만() ② 30분이상 ~1시간미만() ③ 1시간이상~ 1시간30분미만()
④ 1시간 30분이상~ 2시간 미만() ⑤ 2시간 이상()

2. 다음은 귀하가 가족과 함께하는 가족식사에 대한 인식(느낌)정도를 묻는 문항입니다. 해당하는 곳에 V 표 해 주세요.

- 4) 나는 가족과 함께하는 식사시간이 기다려진다
① 전혀 그렇지않다() ② 그렇지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 5) 가족과 함께 하루 한끼 이상 식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① 전혀 그렇지않다() ② 그렇지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 6) 우리가족은 식사시간이 가족과의 대화시간이다
① 전혀 그렇지않다() ② 그렇지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 7) 가족과 함께 하는 식사시간이 가족 간의 유대를 가깝게 한다.
① 전혀 그렇지않다() ② 그렇지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8) 가족식사는 건강유지를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

- ① 전혀 그렇지않다() ②그렇지않다() ③보통이다() ④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9) 가족식사를 통해서 식사예절을 배울 수 있다

- ① 전혀 그렇지않다() ②그렇지않다() ③보통이다() ④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3. 다음은 귀하가 밥상머리에서 웃어른으로부터 배우는 밥상머리 예절교육의 내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해당하는 곳에 V 표 해 주세요.

10) 부모님이나 웃어른이 수저를 들기 전에 먼저 먹어서는 안된다고 하신다

- ①전혀안함() ②한학기에1~2번() ③한달에1~2번() ④ 1주일에1~2번()
⑤거의매일()

11) 식사 전과 후에 ‘잘먹겠습니다, 잘먹었습니다’ 등 음식을 만든 분에게 고마운 마음으로 인사말을 하도록 하신다.

- ①전혀안함() ②한학기에1~2번() ③한달에1~2번()
④ 1주일에1~2번() ⑤거의매일()

12) 밥상에 차려진 음식은 가족들을 배려하면서 함께 나눠먹으라고 하신다

- ①전혀안함() ②한학기에1~2번() ③한달에1~2번()
④ 1주일에1~2번() ⑤거의매일()

13) 음식을 고르지 말고 골고루 먹도록 하신다

- ①전혀안함() ②한학기에1~2번() ③한달에1~2번()
④ 1주일에1~2번() ⑤거의매일()

14) 자기가 먹은 그릇은 자기가 직접 치우도록 하신다

- ①전혀안함() ②한학기에1~2번() ③한달에1~2번()
④ 1주일에1~2번() ⑤거의매일()

Ⅲ. 다음은 여러분의 학교생활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공부와는 관계없으므로 맞고 틀린 답이 없으며, 응답자가 누군지 전혀 알 수 없는 철저히 비밀이 보장되는 자료이므로 한 문항도 빠짐없이 자신에게 해당하는 곳에 V 표 해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거의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선생님들에게 인사하기 싫다					
2	선생님들과는 대화하기 싫다					
3	선생님들 말씀이 지겹다					
4	선생님들이 마음에 안들면 반항하고 따진다					
5	좋은 선생님은 한 사람도 없다고 생각한다					
6	어려운 일이 있어도 선생님께 상담을 요청하지 않는다					
7	선생님과는 항상 거리감이 있다					
8	선생님들이 시키는 일은 무엇이든지 하기 싫다					
9	학교에서 친구들과 어울리기 싫다					
10	친구들이 좋은 물건(신발, 휴대폰 등)을 가지고 있으면 뺏고싶다					
11	나의 의견을 무시하는 친구는 실컷 때려주고 싶다					
12	힘이 없고 약한 친구들을 괴롭히고 싶다					
13	친구들과 한번 싸우면 끝까지 말을 하지 않는다					
14	친구가 공부를 하면 방해 한다					
15	친구가 나보다 무엇이든지 잘하면 무조건 싫다					
16	친구들을 따돌리고 싶은 적이 있다					
17	친구들에게 화풀이를 자주 한다					
18	수업시작 벨이 울리면 교실에 들어가기 싫다					

19	예습, 복습은 거의 하지 않는다					
20	시험만 생각하면 머리가 아프다					
21	수업시간에 배우는 내용은 아는 것이 별로 없다					
22	수업시간에는 공부보다 딴 생각을 많이 한다					
23	공부하는 것은 재미없고 따분하다					
24	수업시간에는 머리가 아프다					
25	수업시간에는 잠을 자주 잔다					
26	수업시간 중에 만화책을 본다					
27	아침 등교시간에는 학교가 아닌 다른 곳으로 도망가고 싶다					
28	나는 담배를 피운다					
29	학교를 그만두고 싶다					
30	지각이나 결석을 자주한다					
31	학교행사(체육대회, 체험학습 등)에는 참여하기가 싫다					
32	거짓말을 하고 수업이나 자습시간을 빼 먹는다					
33	학교에서 잘못으로 봉사명령(벌, 징계처분 등)을 받은 적이 있다					

IV. 다음은 청소년비행에 관한 내용입니다.

응답자의 이름도, 나이도, 학교도 알 수 없는, 철저히 비밀이 보장되는 자료이므로 한문항도 빠짐없이 솔직하게 해당하는 곳에 V 표 해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항 목	전혀 없다	없 다	보 통 이 다	많 다	매 우 많 다
1	가출을 한 적이 있다					
2	무단결석을 한 적이 있다					
3	본드, 부탄가스, 신나를 흡입한 적이 있다					
4	비디오방에 가본 적이 있다					
5	유흥업소에 가 본 적이 있다					
6	외박을 하고 집에 안 들어간 적이 있다					
7	공공장소에 있는 기물을 파손시키거나 다른 사람의 물건을 부순 적이 있다					
8	다른 사람을 심하게 때린 적이 있다					
9	패싸움을 해본 적이 있다					
10	다른 아이의 돈이나 물건을 빼앗은 적이 있다					
11	매점가기 등의 심부름을 억지로 시킨 적이 있다					
12	친구를 의도적으로 괴롭힌 적이 있다					
13	집안에서 돈이나 물건을 훔쳐본 적이 있다					
14	남의 물건을 훔쳐 본 적이 있다					
15	돈내기 도박을 한 적이 있다					
16	흥기를 소지한 적이 있다					
17	준비물이나 먹을 것을 억지로 뺏은 적이 있다					
18	체육복, 가방, 신발 등을 훼손한 적이 있다					
19	음란비디오를 본 적이 있다					
20	음란서적을 본 적이 있다					
21	음란사이트를 들어가 본 적이 있다					
22	이성과 성관계를 해 본 적이 있다					
23	퇴폐업소에 가 본 적이 있다					
24	길가는 여자(남자)를 희롱한 적이 있다					

♥ 끝까지 설문에 응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